2017 Hello! Contemporary Art

야외설치 1977로부터

2017 Hello! Contemporary Art 야외설치 1977로부터

비매품 / 무료
ISBN 979-11-953931-2-1

2017 Hello! Contemporary Art
야외설치 1977로부터

Contents
목 차

5 발간사

7 2017 Hello! Contemporary Art
- 권혁규 김형철 서상희
- 박정기
- 연계 전시 정재범
- 연계 워크숍

37 참고자료: 2014-2016 Hello! Contemporary Art

63 2017 Hello! Contemporary Art
- 참여작가 인터뷰
- 참여작가 프로필

77 전시소개

발 간 사

대구의 미래, 창의문화 도시 중구에서 운영하는 봉산문화회관이 2004년 개관한 이후, 대구시민뿐만 아니라 국내의 많은 애호가들이 즐겨 찾는 문화예술 지원공간으로 꾸준히 자리매김해오면서 어느덧 13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봉산문화회관에서는 동시대미술의 소개와 이해, 나아가 '소통'을 지원하기위해 지난 2014년부터 "Hello! Contemporary Art"를 내세운 전시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Hello! Contemporary Art : 야외설치1977로부터"展을 개최하고, 그동안의 지난 시간과 전시 과정의 일부를 기록하며 관련 전시작업의 이미지와 글을 모아 자료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시는 대구 출신의 미술가 4인을 초청하여 야외설치 미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계층의 대중과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우리시대의 실험미술을 소개하고, 그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기획전시입니다. 이번 전시에 참여하는 박정기, 권혁규, 김형철, 서상희 작가와 연계전시에 참여하는 정재범 작가는 예술 본연의 자유로운 감성과 직관력을 바탕으로 동시대 예술의 다양한 가능성들을 실험하는 시각예술가입니다. 대중과의 예술 소통에 관한 이번 전시의 실험적인 행위들은 1970년대 대구의 미술행위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참여 작가들의 자연에 대한 예술의 실험적 상상과 야외설치 미술의 시도는 낙동강변이나 야외에서 이벤트를 진행했던 과거 대구현대미술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번 전시의 바탕이라 할 수 있는 지난번 "2014 Hello! Contemporary Art : 실험정신1978로부터"展(2014.10.1~10.14)은 고인이 되신 박현기 작가와 이강소, 최병소, 김영진 작가가 제작한 1978년도 비디오영상 작품과 참여 작가의 인터뷰자료들을 소개하였던 전시 "기억공작소-비디오아티스트1978"展(2014.6.11~8.10)의 후속 전시였습니다. 이들 전시를 통하여 지나온 실험미술의 역사와 관련된 자료들이 대구의 중요한 예술적 자산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Hello! Contemporary Art : 야외설치1977로부터" 전시와 자료집 발간도 이러한 맥락에서 준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집의 후반 부분에 이번 야외설치와 연계전시에 참여한 미술가의 인터뷰 내용, 참고자료 등을 함께 실었습니다.

이 전시를 마무리하면서 '실험정신'이라는 키워드로 동시대미술의 일부 현장을 기록하고, 부분적으로나마 정리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 자료집에 실린 인터뷰 내용과 작품 이미지 등은 앞으로 더욱 풍성해질 동시대 미술의 실험정신을 기대하게하는 소중한 자료로 기억될 것입니다.

전시에 출품한 작업과 인터뷰를 통하여, 실험적인 태도를 마주하고 미술 감상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이번 전시와 연계전시에 참여한 작가를 비롯하여 지금까지 봉산문화회관 기획전시에 참여하셨던 미술가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봉산문화회관 전시에 애정을 담아주신 많은 예술인들과 관람객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관심어린 눈으로 격려와 응원해주시길 기대하며, 이번 전시와 자료집 발간을 위해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에게도 함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대구광역시중구청장 윤순영

2017

Hello! Contemporary Art

야외설치 1977로부터

■Spot1 협력정원展
2017 Hello! Contemporary Art Ⅰ

권혁규 김형철 서상희
2017. 7. 21.(금) – 8. 19.(토)
10:00~21:00
Bongsan Cultural Center 1F/ 야외광장

■Spot2 정원展
2017 Hello! Contemporary Art Ⅰ

박정기
2017. 7. 21.(금) – 8. 19.(토)
10:00~19:00 월요일 전시 없음
Bongsan Cultural Center 3F / 2Exhibition Hall

■연계 전시-Rainbow falls展
2017 Hello! Contemporary Art Ⅱ

정재범
2017. 7. 14.(금) – 8. 26.(토)
10:00~19:00 월요일 전시 없음
Bongsan Cultural Center 2F / 3Exhibition Hall

■연계 워크숍
2017 Hello! Contemporary Art展과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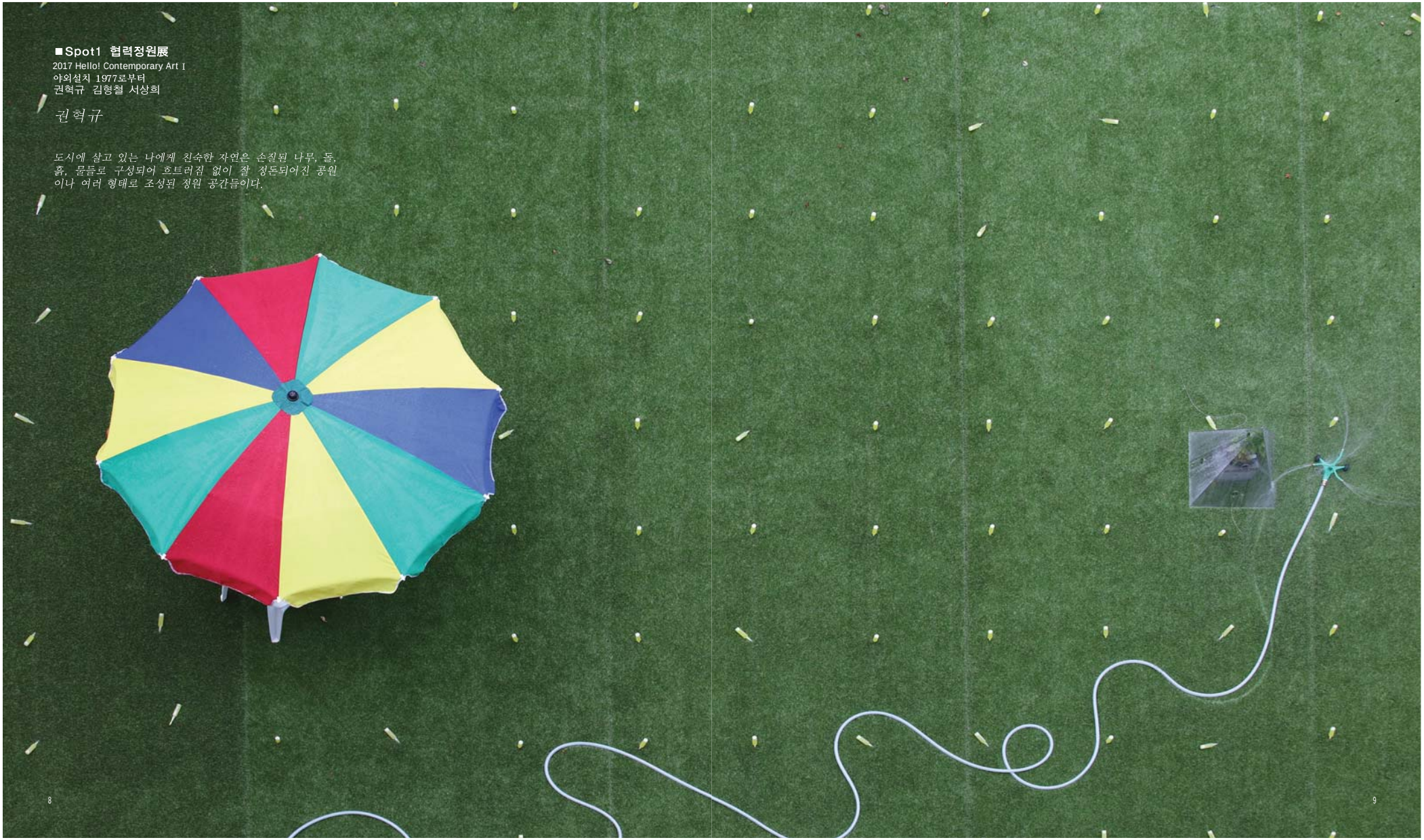
예술가처럼 생각하기 워크숍
2017. 7. 27.(목) – 8. 12.(토)
Bongsan Cultural Center 4F / 강의실

■Spot1 협력정원展

2017 Hello! Contemporary Art I
야외설치 1977로부터
권혁규 김형철 서상희

권혁규

도시에 살고 있는 나에게 친숙한 자연은 손질된 나무, 돌, 흙, 물들로 구성되어 흐트러짐 없이 잘 정돈되어진 공원이나 여러 형태로 조성된 정원 공간들이다.



가상공원Virtual Park_ 인조잔디, 러버콘, 스프링클러_1600x700x240cm_2017

도시에 살고 있는 나에게 친숙한 자연은 손질된 나무, 돌, 흙, 물들로 구성되어 흐트러짐 없이 잘 정돈되어진 공원이나 여러 형태로 조성된 정원 공간들이다. 자연이지만 자연스러움이 결핍된 모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실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모조품 같은 인공자연처럼 느껴진다.

생활 곳곳에 자연의 대체품들이 생겨나고 그것을 자연이라 믿고 영위하는 모습을 다감각적으로 표현하려한다. 가공 편집된 소리와 응축된 향기, 자라지 않는 인공잔디에 식물영양제와 스프링쿨러로 물을 공급하는 모순된 행위와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경고 메시지와 러버콘으로 과잉보호 속 통제된 모습은 우리가 자연을 영위하는 또 다른 방식 일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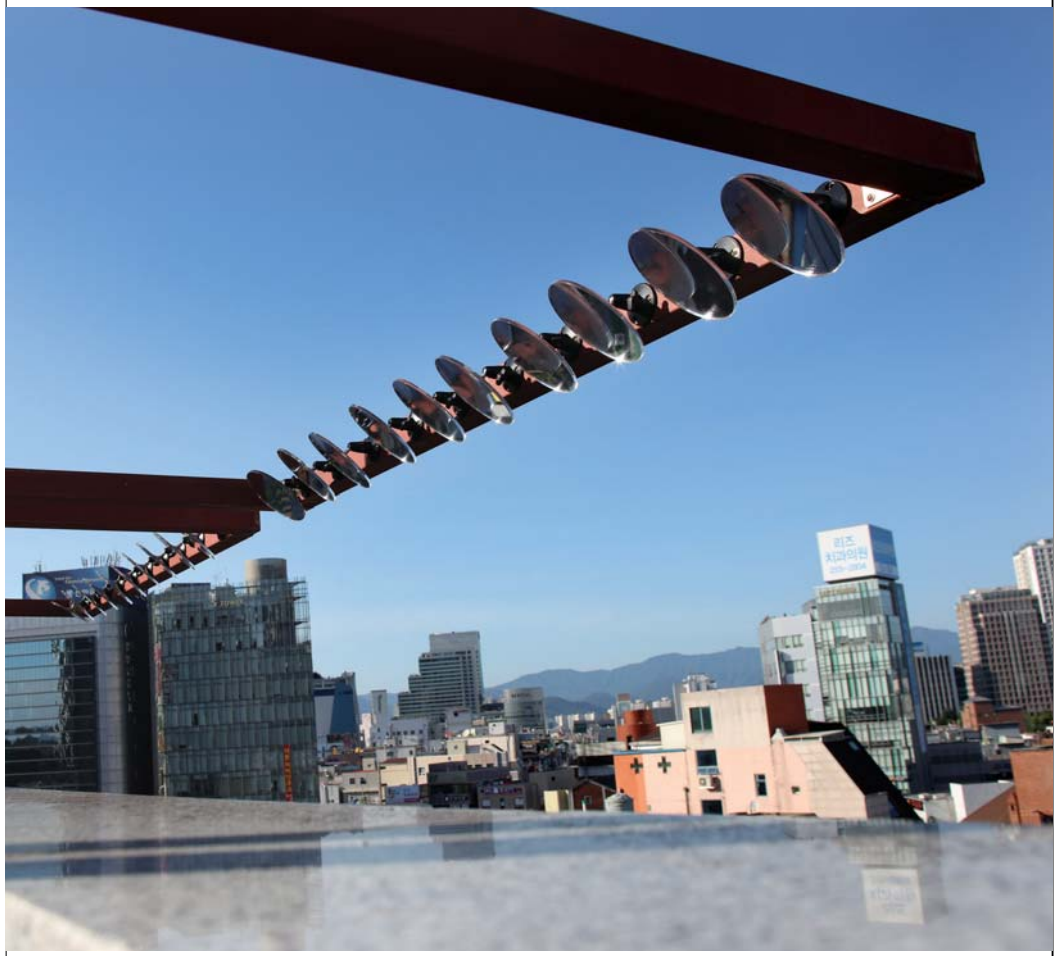
권혁규 작가노트

■Spot1 협력정원展

2017 Hello! Contemporary Art I
야외설치 1977로부터
권혁규 김형철 서상희

김형철

어떤 반복과 순환,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비슷한 반복과 순환의 형태에서 출발을 한다. 해가 둥그란 거울을 통해 만들어주는 그림자 속(그늘)에 빛의 움직임은 정말 느리게 움직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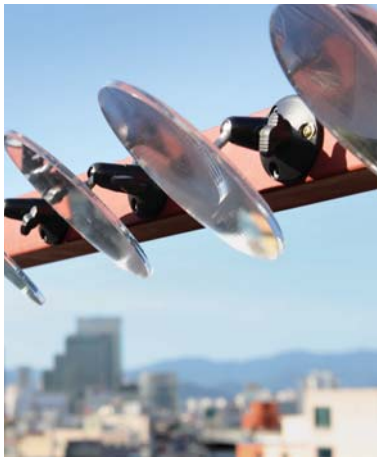


Highlight_ Steel & Mirror_150x100x180cm_2017

자연의 힘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모든 것에 적용이 되는 에너지라고 생각한다. 특히 사람은 자연 앞에서는 아주 미미한 존재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다. 날씨 때문에 감정이 변하고, 바다나 숲, 하늘을 보며 감정이 파도처럼 변하는 것이 인간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최대한 자연스러운 상태로 살아가고 싶다. 구름이 변하듯이, 파도에 바위가 변하듯이 천천히 매순간 충실하며 살아가는 것.

내가 바라는 나의 모습 때문에 이번 야외전시에 해를 이용한 작업을 시도 하였다. 해가 뜨고 지는 것은 매일 누구나 똑같이 보고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매순간을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시간을 흘려보내버리면 매일 똑같은 것조차 느끼는 건 어렵다고 생각한다. 사람은 죽기 전에 모든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한다. 해가 산을 넘어 떨어져 사라지는 기분이 마치 모든 소중한 순간들이 끝나기 전, 어떤 태양빛보다 가장 깨달음을 주는 빛의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일몰의 태양빛은 나의 작업개념에서 일출이나 중천에 떠있는 해보다 더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나의 작업은 어떤 반복과 순환,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비슷한 반복과 순환의 형태에서 출발을 한다. 해가 동그란 거울을 통해 만들어주는 그림자 속(그늘)에 빛의 움직임은 정말 느리게 움직일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갑작스럽게 만들어지는 것보다 빛의 움직임처럼 느리게, 오랜 시간을 통해 만들어 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다.

김형철 작가노트



■Spot1 협력정원展
2017 Hello! Contemporary Art I
야외설치 1977로부터
권혁규 김형철 서상희

서상희

자연적인 오브제인 식물(아날로그)과 투명성을 지닌 인공물인 '사각뿔'(인공, 디지털)을 결합한다. 사각뿔은 내가 만든 인공의 공간이다. 이는 형태적인 면에서 디지털, 인공적인 느낌을 더욱 가미해주면서 식물이 가진 자연성과 상반된 이미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OPEN_ 가상정원virtual garden_식물, 혼합재료_가변크기_2017

기술이 발전할수록, 우리는 그 기술에 대한 감탄과 더불어 자연 또는 식물에 대한 관심도 급증하고 있는 것 같다. 어쩌면 디지털이 발전할수록 반대로 우리는 아날로그에 대한 감성을 본능적으로 그리워하며 좇아가기도 한다. 이전의 '가상정원'은 디지털(digital)과 아날로그(analogue), 두 상반된 개념을 적용하여 이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회화적 공간으로 연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OPEN_가상정원'은 기존의 작업인 '가상정원'을 야외로 가지고 나온 또 다른 버전이다. 자연적인 오브제인 식물(아날로그)과 투명성을 지닌 인공물인 '사각뿔'(인공, 디지털)을 결합한다. 사각뿔은 내가 만든 인공의 공간이다. 이는 형태적인 면에서 디지털, 인공적인 느낌을 더욱 가미해주면서 식물이 가진 자연성과 상반된 이미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밖으로 가지고 나온 인공의 공간은 실제의 식물을 그 안에 넣어 가상정원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 및 객체가 된다. 다양한 높이의 객체들이 모여 열려진 야외버전의 가상정원을 형성한다. 하지만 야외의 뜨거운 햇빛 아래, 가상정원에서의 인공사각뿔은 식물이 살아가기에 어려운 공간이다. 관람자는 비닐로 설정해놓은 가상정원의 범위 안에 들어와 직접, 식물과 사각뿔을 결합시켜 객체를 만들 수 있으며, 또는 식물을 가꾸고 살리기 위해 물을 주거나 사각뿔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행위들을 통해 'OPEN_가상정원'을 관람자들이 직접 가꾸고 보살핌으로 내가 설정한 정원과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서 진정한 협력정원을 이루게 된다.

서상희 작가노트

■Spot2 정원展
2017 Hello! Contemporary Art I
야외설치 1977로부터

박정기

정원건축의 담 사이로 바라보는 자연을 통하여, 자연을 감상하며 영감을 얻고 참 자기를 조우할 수 있었던 전통적 정원 공간에 대한 아쉬움과 변질된 현대사회의 파편적 양상들을 연출하고 야외광장의 설치프로젝트에 관한 드로잉과 모델, 필름 등을 함께 설계하려한다.

The Rain pavilion I (model)_ wood, plexiglass_60x30x9cm_2017
The Rain pavilion II (model)_ styrofoam, plexiglass_100x30x35cm_2017

작업제작 과정은 먼저 스케치를 통해 아이디어와 개념을 만들고 모형화 시키는 과정으로 옮겨 간다. 이 과정에서 개념은 한층 더 구체화 된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생산된 개념과 아이디어는 전시 환경에 맞게 변형하거나 확대 축소해서 현실화 된다.

같은 컨셉이라도 경우에 따라 오브제작업을 설치로, 설치를 프로젝트로, 퍼포먼스를 설치로, 다양한 형태로 변형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순수 개념을 기록한 드로잉이나 모델 형태로 남겨지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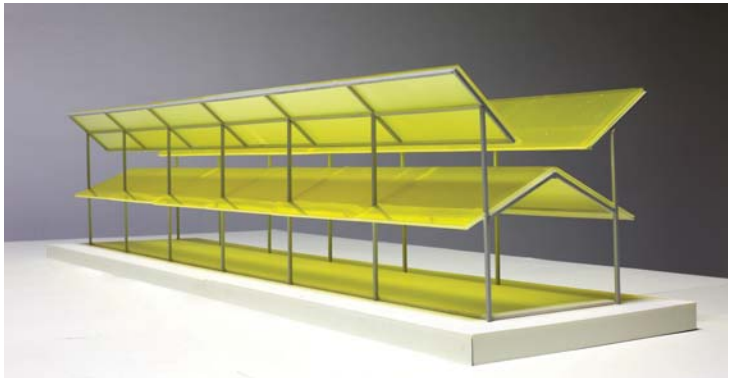
이런 여러 단계의 과정에서 각 과정은 그 자체로 독립적 의미와 역할을 지닌 작업이 되기도 하고, 전체적인 변형 과정이 하나의 작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다층적인 작업과정을 선호하게 되었다. 이번 전시도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많아서 여러 차례 의도하지 않은 변형 과정을 거치면서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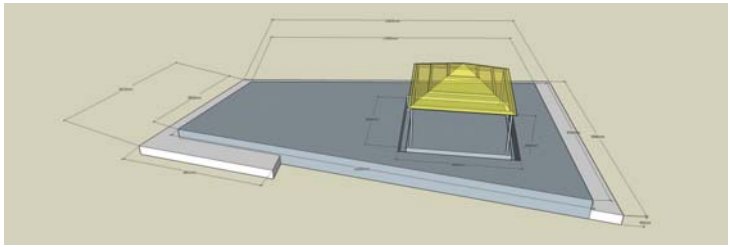
전시는 "2017Hello! Contemporary Art I – 야외설치 1977로부터 Spot2"라는 제목으로 진행되고 있다. 원래 전시는 〈레인 프로젝트(The Rain Project)〉를 야외 프로젝트로 전환하여 진행하자는 제안으로 부터 시작 되었다. 이후, 작업은 물을 이용하여 멜랑꼴리한 건축구조를 만드는〈레인 파빌리온 / The Rain pavilion (2017)〉으로 개념을 변형하여 진행되었지만, 예산 문제로 추진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다시 제안한〈레인 파빌리온 / The Rain pavilion 2 (2017)〉프로젝트는 시민들이 쉴 수 있는 데크와 물로 만들어진 파빌리온 형태로 변형되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마저 예산부족으로 현실화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말았다.

이제 프로젝트는 더 이상 단독으로 야외 프로젝트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전혀 다른 형태로 전시계획을 변경하게 된다. 몇 명의 젊은 작가들과 그룹전 형식으로 야외공간과 실내 전시공간에서 동시에 진행하는 그룹 프로젝트가 되었다.

새롭게 기획된 그룹전에서 실내 전시공간에서의 설치작업인 〈정원 / The Garden〉을 변형하여 〈The GardenII〉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그리고 전시는 프로젝트 모델, 드로잉, 필름, 설치 등 이제까지 진행해온 작업과정 전체를 한 공간에서 같이 보여주는 형식으로 진행 하려 한다.

The Garden II_ wood, bamboo, grass, sound of eating hay_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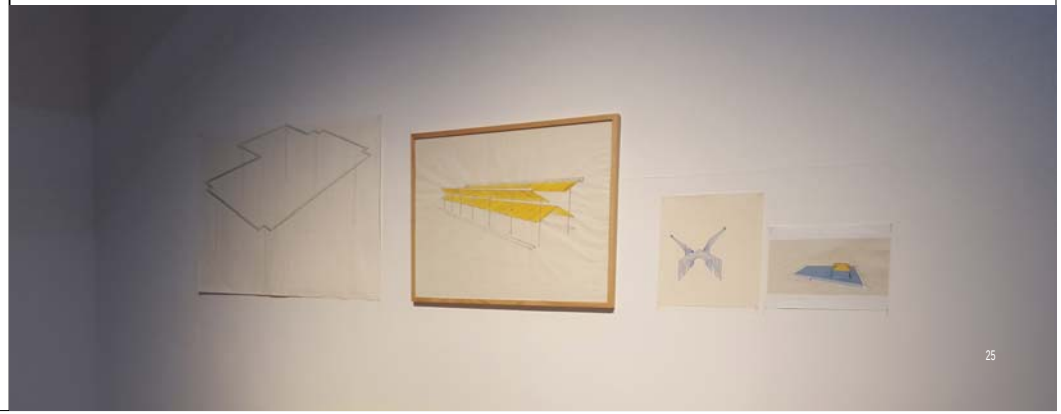
Rain project, Rain pavilion I,II를 위한 드로잉과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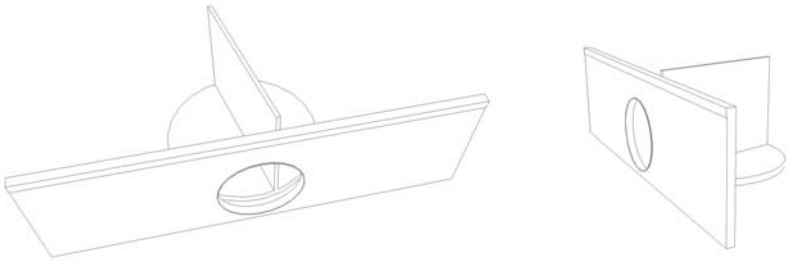
1. 〈레인 파빌리온 / The Rain pavilion (2017)〉

〈레인 프로젝트 / The Rain Project〉 는 모형 작업으로 2012년에 기획되었다. 57x50x56cm로 축소된 가상의 전시 공간에 투명한 노란 플랙시 글래스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위로 구멍이 난 파이프와 펌프를 설치하여, 비가 지붕에 반복하여 부딪히는 소리의 공명을 비어있는 전시 공간 안에 연출한 설치작업 이었다.
이 작업은 이후 봉산문화회관의 요청으로 야외 작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공간 안에서 소리의 공명을 이용하는 것 대신 물 자체로 공감각, 시각, 청각, 후각, 촉각적인 건축구조를 직접 구축하는 〈레인 파빌리온 / The Rain pavilion (2017)〉으로 전환 되었다.

〈The Rain pavilion〉(3x3.5x12m)은 1, 2층에 각각 지붕이 있는 긴 회랑 구조를 가지고 있다.
지붕은 노랗고 투명한 아크릴 글라스(플랙시 글라스)를 사용하여 물과 빛이 잘 보이도록 연출하였다. 투명하고 노란지붕으로 인해 구조물 안쪽은 온통 노란빛으로 가득 차있게 된다.
긴 회랑의 지붕은 2층에서 부터 바깥에서 안쪽으로 안쪽에서 바깥으로 마주보며 기울어진 지붕구조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2층에서 1층으로는 구조물 안쪽으로 1층에서 바닥으로는 다시 바깥쪽으로, 물이 투명한 지붕을 타고 흘러 떨어지게 된다.
바닥에 저장 되었던 물은 모터를 이용해1,2층을 연결하는 기둥을 통해 2층 지붕 가장자리에 위치한 2개의 용마루 윗부분으로 물을 이동 시켜 다시 아래로 순환하도록 하였다.
〈레인 파빌리온 / The Rain pavilion (2017)〉의 기본적인 컨셉은 유동적으로 흐르는 물을 재료로 이용하여 긴 회랑 형태의 명상적인 건축적 구조를 구축하는(만드는) 것이다.

〈The Rain pavilion II〉(1600x1000x80cm)는 앉거나 누울 수 있는 야외 데크 공간이다.
데크(400x400x450cm) 위에는 정자 형태를 가지고 있는 구조물이 놓여있다. 구조물은 노란 플랙시(아크릴) 글라스로 만들어진 투명한 지붕 때문에, 구조물 안쪽은 온통 노란빛으로 가득 차있게 연출 되어 진다. 지붕으로 끌어올린 물은 지붕을 타고 사면의 빈 공간으로 벽을 만들며 흐른다. 흘러내린 물은 30cm 폭의 홈을 통해 무대 공간 밑의 바닥 저장 공간에 모인다. 고인 물은 모터를 통해 다시 기둥 속을 관을 타고 지붕으로 올라가 다시 흘러내린다.
〈The Rain pavilion II〉는 야외에 앉고 누울 수 있는 데크 바닥과 벽이 없는 구조물로 안과 밖의 시선이 소통 할 수 있는 개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전통누각의 자연친화적 특징을 현대적 도시공간에 맞게 재해석하여 빛과 물을 건축 구성 요소로 끌어들이고, 쉼과 휴식, 소통, 명상적 요소로 도시공간을 완충적으로 연결하려 하였다.





The Garden Ⅰ을 위한 도면

2. 〈정원 / The Garden (2017)〉

작업 **〈정원 / The Garden〉**은 전통적인 정원 담과 둥근 문으로 구성된 전면 부와 이 문을 통해서 보여지는 후면 부로 구성되어 있다. 전면 부는 10~15x3m 긴 벽에 2m 높이의 둥글게 뚫린 문이 있는 긴 흰색담장이 설치 되어있다. 후면 부는 둥근 모양의 정원 문을 통해서 보이는 안쪽에는 대나무와 풀, 꽃, 잔디가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소 되새김질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정원 안쪽에서 부터 흘러나온다.

실제 관람객은 긴 정원 벽에 둥글게 난 문을 통해서만 이런 정원풍경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구조이다. 후면부의 정원 풍경은 지름 4m의 둥근 원판 위에 설치되어 있으며 원판의 아랫부분에는 모터가 연결되어 있어 원판 위에 설치된 풍경은 천천히 움직인다.
이 원판의 중앙에는 원판을 둘로 나누는 3m정도 높이의 흰 벽이 설치되어 있다. 한쪽은 정원 풍경이 설치되어 있지만 다른 한쪽에는 흰색의 벽만 보이는 빈 공간이다.
전체 원판은 천천히 회전하며 이 두개의 공간을 다양한 시각으로 보여준다.
천천히 움직이는 공간은 앉아 있는 관람객에게 앉아서 정원을 걷는 것 같은 시점을 제공한다.
이런 시점은 나이가 들어서 산에 오르기 힘들어 자신의 방 벽면에 산수화를 그려 놓고 상상 속에서 자유롭게 노닐었다는 산수화가 종병(宗炳, 375~443년)의 '와유(臥遊) 개념에서 착안 하였다.

동양에서 정원은 자연을 감상하며 영감을 얻는 장소이며 참 자기를 조우하는 공간 이었다.
그래서 남의 뜰이 아닌 자신만의 뜰에 서 있다는 표현은 자기 자신을 발견한 로맨틱한 순간이나 그 어떤 것에도 종속됨이 없는 자유로운 정신을 은유하기도 한다. 하지만 인공적인 도시공간에서 인간은 스스로 정신을 고양시킬 공간적 토대마저 상실하였다. 현대 사회는 더 이상 이런 개인의 삶의 질에 대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산업화를 거치면서 우리의 몸과 정신은 노동에 적합한 기계적이고 집단화된 형태로 변질되었다.

이번 전시작업 **〈정원 / The GardenⅡ〉**는 정원의 담(950x250x25cm)으로 나누어져 있는 전면 부와 후면 부로 구성되어 있다. 나누어진 두 공간은 담에 뚫려 있는 둥근 문(지름180cm)으로 출입 할 수 있다. 정원 전면은 흰색으로 칠해진 담과 빈 공간이 보이고 뒷 편은 담을 구성하는 나무골조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정원 후면 부는 바퀴 달린 기하학적인 나무구조 위에 놓여있는 잔디 조각들과 이리저리 놓여있는 대나무 화분 그리고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소 되새김질 소리가 뒤섞여 있다.

전작인 정원(The Garden)에서 자기 조우를 상징하던 공간이었던 정원은 〈정원Ⅱ / The GardenⅡ〉에서 산업화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난 자기부정과 자기 분열적 풍경으로 관객과 마주하고 있다.

노동시간이 전면화된 일상은 우리에게 자기실현의 기회를 제거시킨 채로 노동의 성과만을 강요하고 있어, 노동과 노동에 종속되어 버린 휴식도 더 이상 개인의 삶을 고양시키지 못하고 있다.
정원은 분열되고 파편화되어 부유하고 있다.

3. 〈Return Home3〉

작업은 2008년 뮌스터(독일)에서 제작한 9분 정도의 퍼포먼스 영상이다.
〈Return Home 03〉(2008)은 언어의 구속력과 상투어의 폭력성에 대한 관심을 송출 중인 라디오를 묻는 퍼포먼스 영상으로 제작하였다.

박정기 작가노트

Return Home3_single channel video_00:09:00_2008

■연계 전시 Rainbow falls展
2017 Hello! Contemporary Art Ⅱ

정재범

사람들의 발걸음이 사라지고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기계의 움직임, 고요한 속에 따주한 에스컬레이터 기계의 민낯은 낯선 모습으로 내 발걸음을 멈춰 세웠다. 높은 곳에서 끝 없이 쏟아져 내리는 계단에서 상상 속 폭포의 이미지를 떠올린다. 오르고 내리는 기계의 일정한 속도에 맞춰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본다.

2017 Hello! Contemporary Art Ⅱ『정재범』展

'Hello! Contemporary Art' 전시는 동시대성의 참조와 이해를 기반으로 서로 다른 개별적 감성들의 시각적 축적을 선보이면서 세계 인식을 상호 연결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지난 2014년, '야생 서식지'를 떠올렸던 미디어아티스트 류재하와 조각가 이기철의 야외설치 전시를 시작으로, 야외광장에 비닐 물주머니를 설치한 홍순환과 나무 조각으로 조성한 실내정원을 선보였던 조각가 김성수로 진행했던 2015년 전시, 컴퓨터 부속품으로 사이버 야외정원을 설치한 리우와 영상, 소리, 미디어로 실내 협력정원을 조성한 권혁규, 김형철, 서상희 3인의 2016년 전시에 이어, 또 다른 '정원'을 상상하게 하는 올해 2017년 전시는 실내 전시공간과 더불어 야외 공간의 경계를 드나들며 대중을 향한 예술 소통 인터페이스의 확장과 우리시대 예술의 다양한 가능성들을 실험하려는 장이다.

정재범의 설계 : 무지개 폭포

이 전시를 지탱하는 작가 정재범의 에너지는 우리의 삶과 세계의 움직임을 직관적으로 감지하여 은유하고 '놀이'처럼 다루는 태도이며, 그 에너지의 교감을 위한 장은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정원庭園'이다. 즉, 우리 삶의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마음껏 채집採集하여 기록記錄하고 공작工作하는 작업 마당으로서 정원인데, 작가의 시선으로 바라본 여기, 현재의 세계에 관한 움직이는 정원이다. 이 정원은 작가가 일상적인 도시 시공간의 구조인 에스컬레이터를 발견하면서 속도와 시간을 주목하고, 자연상태의 폭포를 연상하면서 그 형태와 정서적 상황의 교감으로부터 평안함과 위로를 받았던 작가의 감성에 의한 사건이다.

"삭막한 도시 안에서 우리는 오늘도 바쁜 걸음을 에스컬레이터 계단에 싣고 하루하루 반복되는 삶을 견뎌낸다. 우리의 삶은 복잡해질수록 공허해지는 모순 속에 단순하고 반복적인 기계의 모습을 닮아간다. 인간을 걷어내고 바라본 기계들의 민낯은 꾸준하고 미련한 어느 노동자의 모습과도 닮아 차가운 기계에 어울리지 않는 연민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도시가 갈수록 삭막해지는 것은 여유와 낭만을 잃어버린 채 어느새 기계만큼 차가워진 우리의 탓도 있을 것이다. 숨 가쁘게 달려가는 일상 속에 에스컬레이터의 계단에 발걸음을 싣고 멈춰 서서 기계의 속도에 맞춰 숨을 고르는 짧은 순간이 아이러니하게도 기계가 우리에게 건네는 위로의 순간일 것이다. 삭막한 도시의 삶에 지친 우리에게 대자연의 웅장함과 숭고함이 위로와 치유로 다가오듯, 전시장으로 빌려 온 도시의 한 장면은 인공자연이라는 낯선 언어로 우리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한다."라는 작가의 말에서처럼 작가 자신의 정서적 교감은 현대인의 속도와 시간에 닿아있다.

대자연 폭포의 상상! 높은 산, 계곡 어디에선가 굉음을 내며 수직으로 쏟아져 내려오는 폭포의 웅장함과 숭고한 움직임! 움직임은 살아있음이고, 생명이며, 순환의 이치를 따른다. 폭포는 계곡을 타고 흘러 작은 강이 되고 다시 큰 강으로 모여 먼 거리를 지나 바다에 다다른다. 바다의 수평은 비교적 움직임이 안정된 생명 에너지의 응축 상태이며, 아마도 거대한 수평과 순환의 움직임을 기억하는 폭포의 수직적 에너지는 많은 변화와 가능성들을 함축하는 긴장의 속도와 움직임의 시간을 생각하게 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상은 작가가 명명한 '무지개 폭포'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은유적 설명이 될 수 있다.
실내의 하얀 전시장 벽면에서 튀어나오듯이 나란히 3미터 높이로 설치된 2개의 에스컬레이터는 전기모터와 체인, 타이머에 의해 서서히 움직이는 목조 계단 구조물이다. 합판과 각목으로 만든 13개의 계단이 위로 오르거나 혹은 아래로 내려오도록 공작하는 데에는 첨단의 테크놀로지보다는 작가가 설명한 적이 있는 중간 기술의 친근감이 묻어있다. 작가는 예전에 발표했던 작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로 생각하고 복잡한 도시 구조 속에서 각자의 역할을 단순 반복하며 자신만의 리듬으로 살아가는 구성원의 동작들을 기계적 움직임으로 재현하여 그들의 일상적 삶에 숨어있던 관조적, 명상적 태도를 은유하였다. 자연과 유대하며 공감과 평온, 자신의 희망을 마주하는 정원처럼 작가는 자신의 '무지개 폭포'에서 위로를 구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이 에스컬레이터의 움직임이 중력과 마찰력에 의해 소리를 내며 작가가 상상하는 자연의 폭포소리와 뒤섞인다. 우리는 이들 반복적인 움직임과 소리 에너지가 건물의 실내 전시 공간과 만나서 원래 공간의 일부인 듯 자연스러운 상태를 '무지개 폭포' 정원이라고 설정하였다. 도시 공간의 일부분을 마주하는듯한 이 상황은 허전하고 낯설다. 하지만 이것은 생명감 넘치는 세계의 생태 환경 규칙의 다른 모습일 수 있고, 그 속에서 인간이 함께 살아 움직이는 발견의 또 다른 전율일 수 있다. 반복적 움직임을 통한 이러한 일체의 실험은 세계 모습의 일부를 반영하는 인위적인 '정원'의 한 양태일 수 있으며, 이러한 세계와 동시대 미디어 사이의 관계 설정, 관객과의 공유, 상황 몰입 등의 실험은 40여 년 전, 이 지역을 생육지生育地로 여기는 동시대미술에 대한 기억과 겹쳐지면서 지금의 미술 실험에 대한 논의를 제안한다.

이번 전시에서 언급하는 '정원'의 기억은 1977년 4월30일 시민회관에서 개최된 "제3회 Contemporary Art Festival DAEGU" 전시의 야외 특별 전시로 5월1일 진행했던 '낙동강 강정 백사장'에서의 해프닝, 이벤트를 기점으로 현재에 이르는 대구의 실험미술(Contemporary Art), 특히 야외 설치전시의 일면을 소개하며 '자연'과 인간의 '예술 행위'가 만나는 의미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이 전시는 지금, 여기로 이어지는 설치미술 관련 태도의 연결 기반이 '실험'과 '자연', '신체행위', '몰입'이며, '실험'을 생육해온 서식지 '정원'으로서 장소를 다시 기억하고, 1977년의 야외 실험정신과 당시 미술가들이 전시공간의 경계를 확장하여 대중과 함께하려는 시도에 관한 현재적 연결성을 가늠하고, '또 다른 가능성'으로서 우리시대 실험미술가의 '태도'를 돌아보려는 기대를 포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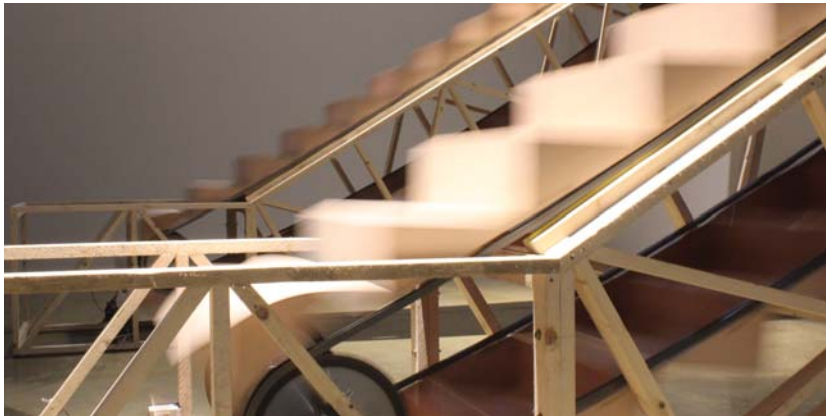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할 정재범의 태도는 세계와 인간 정서의 관찰, 움직임, 놀이, 자연성自然性의 은유, 그 사이의 부조리不條理를 꿰뚫는 직관적 인식을 시각화하여 동시대미술의 소통 가능성과 지평을 확장시키려는 탁월성이다. 따라서 이러한 작가의 작업 설계와 놀이에 대한 공감 시도는 과거에 이어 새롭고 명확해질 동시대의 어떤 순간을 위한 우리의 'Hello!'일 것이다.

정종구

우리가 살아가는 속도와 시간에 대한 작업을 하고 있다. 나 역시 학생으로 직장인으로 바쁜 일상을 견뎌내며 살아왔다. 도시의 빠른 속도에 적응하기 위해 발걸음은 빨라지고 호흡은 점점 가빠왔다. 이후 이스라엘 유학시절 경험한 키부츠 공동체에서의 길지 않은 시간은 조금 더디긴 하지만 내 호흡을 제 속도로 되찾아 주었다.

번잡함으로 가득한 도시 안에서 우리는 에스컬레이터에 설정된 적정 속도에 맞춰 마치 컨베이어 벨트에 실린 제품처럼 같은 모습으로 반복되는 삶을 살아간다. 우리는 그렇게 쉬지 않고 움직이는 일상의 컨베이어 벨트에 삶을 실은 채 멈추지 못하고 많은 것을 지나쳐왔을 것이다. 사람들의 발걸음이 사라지고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기계의 움직임, 고요함 속에 마주한 에스컬레이터 기계의 민낯은 낯선 모습으로 내 발걸음을 멈춰 세웠다. 높은 곳에서 끝없이 쏟아져 내리는 계단에서 상상 속 폭포의 이미지를 떠올린다. 오르고 내리는 기계의 일정한 속도에 맞춰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본다.

정재범 작가노트



Rainbow falls (무지개폭포)_ 나무, 모터, 체인, 기어, 타이머_4870x800x2840mm (2점, 가변설치)_2017

■연계 워크숍

2017 Hello! Contemporary Art展과 함께

예술가처럼 생각하기 워크숍

기　간 : 2017. 7. 27(목) ~ 8. 12(토)
　　기간중 매일 2회(소요시간 1회 90분)

장　소 : 강의실(4층)
　　-권혁규 김형철 서상희, 박정기처럼 생각하기 10:30~12:00
　　-정재범처럼 생각하기 13:30~15:00

에듀케이터 : 이기선, 신재희, 이시은, 김동앵, 김민지, 김진영

봉산문화회관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청소년과 가족 단위의 관람객을 주 대상으로 동시대미술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예술교육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가족 단위의 전시 관람과 워크숍 참여에 주목하게 된 이유는 미술관 혹은 전시장을 찾은 부모와 자녀가 미술작품을 감상하며 나누는 대화의 빈약함과 그 한계에 대한 대안 마련의 필요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하나의 대안은 이렇습니다. 미술가가 작업과정에서 접하는 어려운 문제점들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궁리하며 생각하고 연구하는 태도들을 미술전시를 찾은 관람객이 체험할 수 있게 된다면 작품의 올바른 감상은 물론 가족 사이에 나눌 수 있는 대화의 스펙트럼은 지금보다 훨씬 더 풍부해지리라는 기대입니다.

이번 기획은 대구에서 전시연계 예술교육 활동을 해온 에듀케이터 이기선, 신재희씨에게 우리회관 예술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권혁규 김형철 서상희, 박정기展'과 '정재범展'에 연계한 워크숍에 대한 연구와 진행을 제안하였습니다. '2017Hello! Contemporary Art와 함께 예술가처럼 생각하기 워크숍'은 봉산문화회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방학시즌 '예술아카데미'의 연장선에 있으면서 좀 더 전문화되고 구체화된 운영 형태이며, 에듀케이터의 진행에 의한 전시작품 감상과 워크시트 작성, 실기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됩니다.

이번 워크숍과 연계한 전시 'Hello! Contemporary Art Ⅰ, Ⅱ'로 구분되는 '권혁규 김형철 서상희, 박정기展'과 '정재범展'에서는 동시대 설치미술의 일면을 접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구의 젊은 아티스트들이 야외전시와 실내전시의 경계를 넘나들며 관객 소통의 접점을 확장하는 구체적인 미술의 실험적인 태도들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은 흥미롭습니다.

먼저, '권혁규 김형철 서상희'의 '협력정원'과 박정기의 '정원' 설계는 세계 혹은 우리 삶의 현재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마음껏 채집採集하여 기록記錄하고 공작工作하는 놀이마당으로서 '정원庭園'에 관한 것입니다. '협력정원'은 인조 잔디와 러버콘, 스프링클러, 파라솔 등 몇 가지의 오브제를 통하여 자연을 대체한 인공자연 환경을 영위營爲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설계한 권혁규, 빛을 반사하는 거울 장치를 활용하여 일몰 시간의 사라지기 아쉬운 자연 태양광을 그늘이 드리워진 도시의 협력정원 구역에 비추려는 김형철, 에너지 집약형의 투명 '피라미드'에 갇힌 식물이라는 연출된 설정에 대한 관객의 선의의 개입을 요청하는 서상희 등 2016년에 실내전시를 설계했던 미디어아티스트들의 야외 공간설치 실험 전시입니다. 실내전시 Spot2의 '정원'은 정원건축의 담에 둘린 둥근 구멍사이로 바라보는 자연을 통하여, 자연을 감상하며 영감을 얻고 참 자기를 조우할 수 있었던 전통적 정원 공간에 대한 아쉬움과 변질된 현대사회의 파편적 양상들을 연출하고, 비디오 영상과 야외광장의 설치프로젝트에 관한 드로잉과 모델 등을 함께 소개합니다.

정재범의 '정원'은 실내의 하얀 전시장 벽면에서 튀어나오듯이 나란히 3미터 높이로 설치된 2개의 에스컬레이터이며, 전기모터와 체인, 타이머에 의해 서서히 움직이는 목조 계단 구조물로서 '무지개 폭포'라는 이름을 달고 있습니다. 이 정원은 작가가 일상적인 도시 시공간의 시설 구조인 에스컬레이터를 발견하면서 속도와 시간을 주목하고, 자연 상태의 폭포를 연상하면서 그 형태와 정서적 상황의 교감으로부터 평안함과 위로를 받았던 작가의 감성에 의한 사건입니다. 작가는 숨 가쁘게 달려가는 일상 속에서 에스컬레이터의 계단 위에 발걸음을 싣고 멈춰 서서, 기계의 속도에 맞춰 숨을 고르는 짧은 순간이 아이러니하게도 기계가 우리에게 건네는 위로의 순간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삭막한 도시의 삶에 지친 우리에게 대자연의 웅장함과 숭고함이 위로와 치유로 다가오듯, 전시장으로 빌려 온 도시의 한 장면은 인공자연이라는 낯선 언어로 우리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합니다. 이 같은 작가의 감성에서처럼 작가 자신의 정서적 교감은 현대인의 속도와 시간에 닿아있습니다.

이번 전시와 연계된 워크숍에서는 '자연과 인공'에 관한 접근, 그것의 구체적인 현상으로서 '정원'을 중심으로 전개한 전시 참여 작가의 생각과 태도, 작업과정 등을 워크숍 참가자들이 직접 체험함으로써 미술 감상 및 예술 교육의 성과를 증진시키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이처럼 전시와 연계된 워크숍을 통하여 우리는 작가의 작품 이야기를 좀 더 쉽고 구체적으로 전달 받을 수 있고, 미술가에 의해 연구된 동시대 예술 세계를 이해하는 한편, 참가자들이 작품 감상과 체험 학습을 경험하면서 자신만의 상상력과 창의력도 키울 수 있는 차별화된 예술교육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종구

2017 Hello! Contemporary Art Ⅰ – 야외설치 1977로부터展 연계

권혁규 김형철 서상희, 박정기처럼 생각하기-마음이 담긴 나만의 작은 정원

1.나만의 정원을 상상하고 나무 막대로 틀 만들기

2.채색한 종이에 식물을 그리고 오리기

3.틀 내부에 종이식물 배치하기

4.흙과 돌, 이끼 등을 넣어 정원 완성하기

5.작품 감상 및 마무리하기

2017 Hello! Contemporary Art Ⅱ – 정재범展 연계

정재범처럼 생각하기-움직임이 있는 내 마음의 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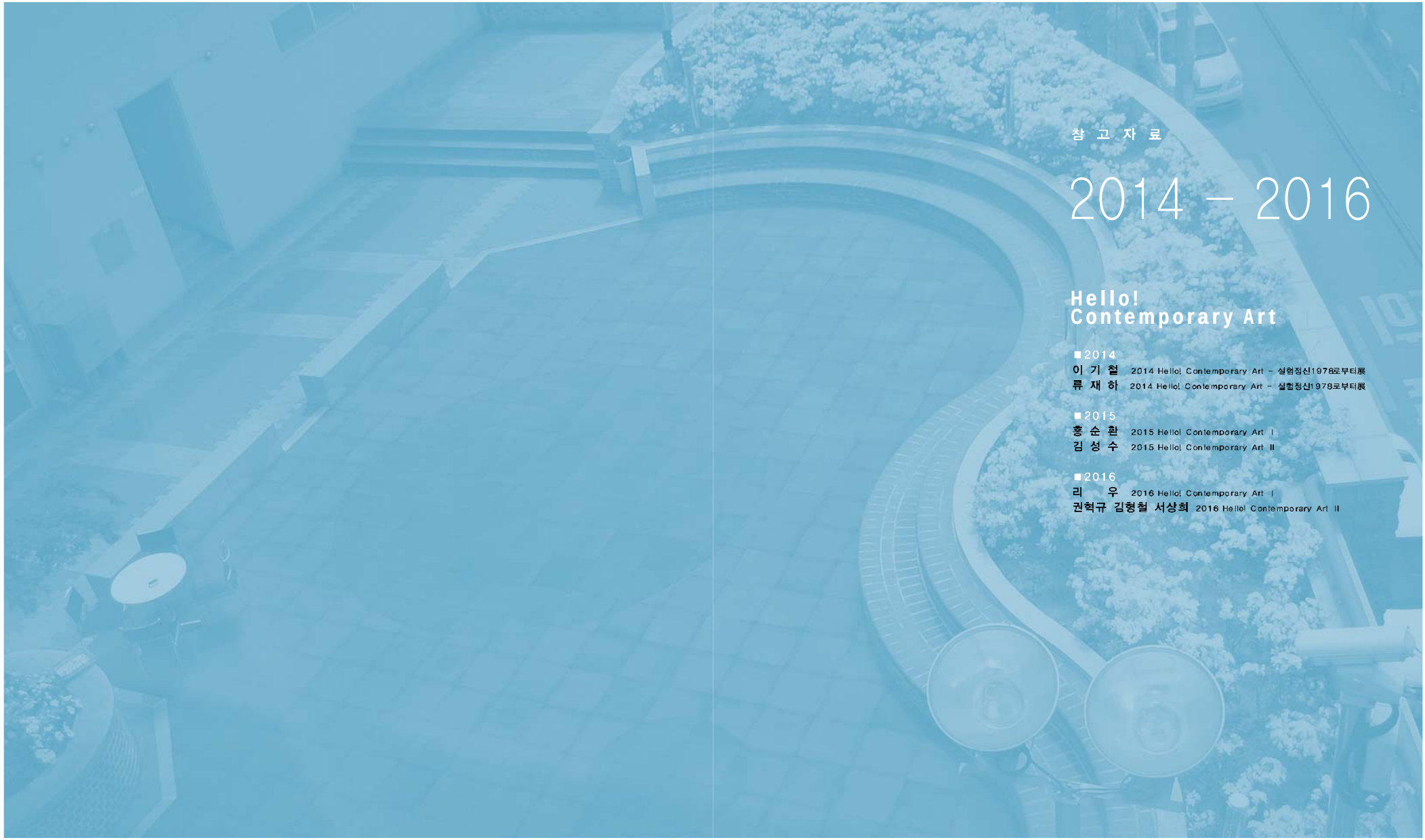
1.일상생활 속에서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대상 찾아 드로잉하기

2.기계장치 제작을 통해 움직임 표현하기

3.만든 장치를 작동시키며 움직임 관찰하기

4.내마음이 쉴 수 있는 공간 표현하여 완성하기

5.작품 감상 및 마무리하기



참 고 자 료

2014 – 2016

Hello!
Contemporary Art

■2014

이 기 첩 2014 Hello! Contemporary Art – 실험정신1978로부터展

류 재 하 2014 Hello! Contemporary Art – 실험정신1978로부터展

■2015

홍 순 환 2015 Hello! Contemporary Art Ⅰ

김 성 수 2015 Hello! Contemporary Art Ⅱ

■2016

리 우 2016 Hello! Contemporary Art Ⅰ

권혁규 김형철 서상희 2016 Hello! Contemporary Art Ⅱ

2014 Hello! Contemporary Art

실험정신1978로부터展

이 기 철

기　　간 : 2014. 10. 1(수) ~ 10. 14(화)
관람시간 : 10:00 ~ 21:00
장　　소 : 봉산문화회관 광장 및 1층 실내외
장　　르 : 영상, 설치
참여작가 : 류재하, 이기철

2014 Hello! Contemporary Art

실험정신1978로부터展

류 재 하

기　　간 : 2014. 10. 1(수) ~ 10. 14(화)
관람시간 : 10:00 ~ 21:00
장　　소 : 봉산문화회관 광장 및 1층 실내외
장　　르 : 영상, 설치
참여작가 : 류재하, 이기철

미디어 영상쇼 "미디어아트@스트리트"
일　　시 : 10. 7 화요일 오후 8시
장　　소 : 대구초등학교 방면 봉산문화회관 외벽
참여작가 : 류재하
진　　행 : 경북대학교디지털아트컨텐츠 연구소

2015 Hello!
Contemporary Art I

홍 순 환
structure of gravity

기　　간 : 2015. 7. 22(수) ~ 8. 8(토)
작가와 만남 : 2015. 7. 22(수) 오후 6시
관람시간 : 09:00 ~ 22:00
워 크 숍 : 2015. 7. 23(목) ~ 8. 8(토), 오전 10시 30분
장　　소 : 봉산문화회관 야외광장

2015 Hello!
Contemporary Art Ⅱ

김 성 수
꽃밭에 놀다

기　　간 : 2015. 7. 22(수) ~ 8. 8(토)
작가와 만남 : 2015. 7. 22(수) 오후 6시
관람시간 : 10:00 ~ 19:00, 월요일 휴관
워 크 숍 : 2015. 7. 23(목) ~ 8. 8(토), 오후 1시 30분
장　　소 : 봉산문화회관 2층 3전시실

2016 Hello! Contemporary Art I

리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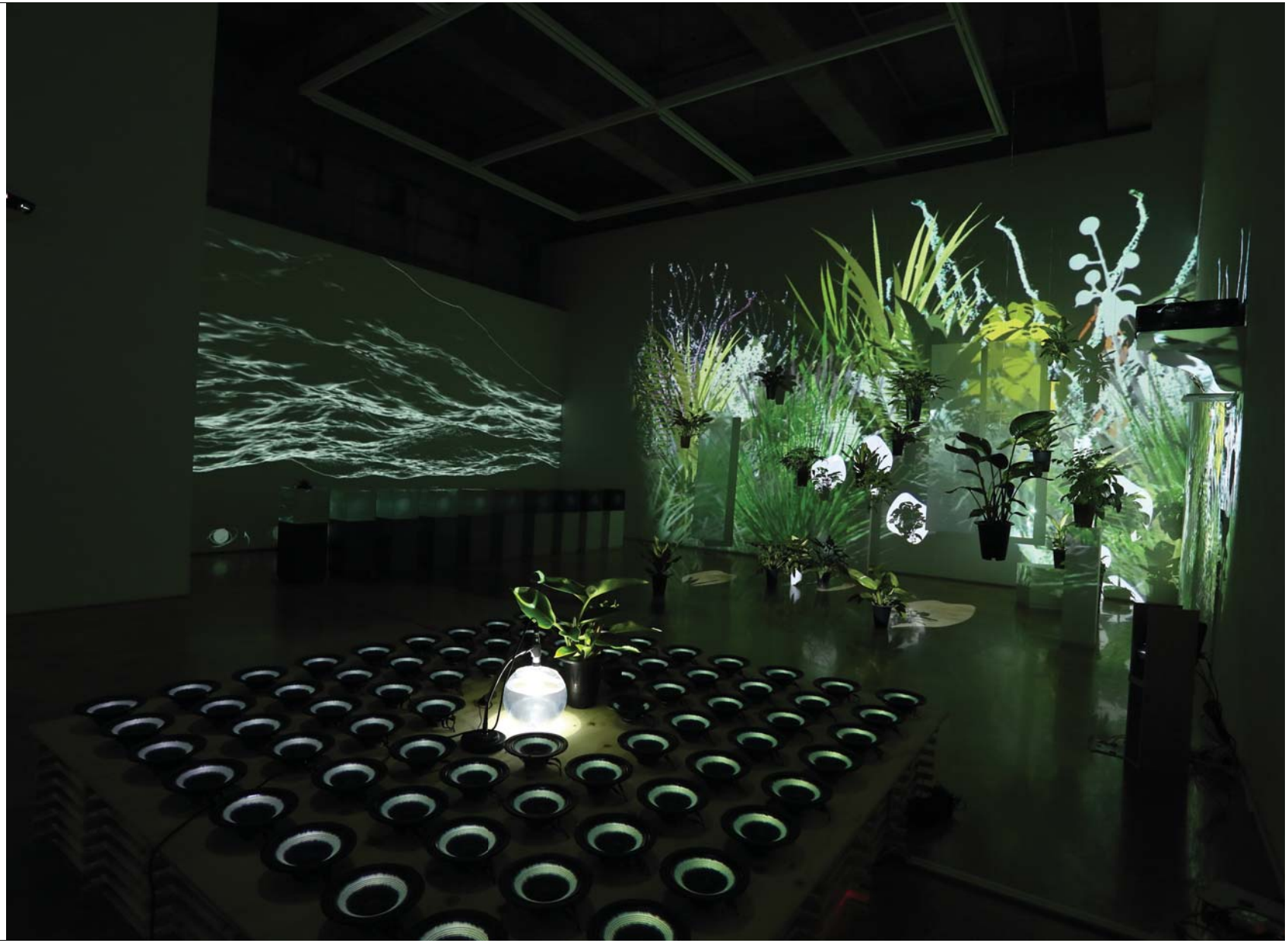
사이버 정원 – 사이를 거닐다

기　　간 : 2016. 7. 13(수) ~ 8. 6(일)
작가와 만남 : 2016. 7. 13(수) 오후 6시
관람시간 : 10:00 ~ 22:00, 월요일 휴관
장　　소 : 봉산문화회관 2층 야외공연장

2016 Hello! Contemporary Art Ⅱ

권혁규 김형철 서상희
협력 정원에서 놀다

기　　간 : 2016. 7. 13(수) ~ 8. 6(일)
작가와 만남 : 2016. 7. 13(수) 오후 6시
관람시간 : 10:00 ~ 19:00, 월요일 휴관
장　　소 : 봉산문화회관 2층 3전시실



2014 Hello! Contemporary Art – 실험정신1978로부터展

「야생 서식지」

"Hello! Contemporary Art – 실험정신1978로부터"는 봉산문화회관의 개관10주년 기념 전시이다. 2004년부터 지금까지 해마다 동시대 미술의 새로운 흐름을 소개하기위해 다양한 전시를 지속해왔고, 현재까지 그 가치에 관한 신뢰의 폭을 점차 넓혀가고 있다. 미래의 가능성이 돋보이는 젊은 예술가들의 작품에서부터 미술사적 가치가 매겨진 역사적인 작품의 전시에 이르기까지 지난 10년 시간의 노력은 다양한 층위를 갖는다. 그러나 동시대 미술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이해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전시의 명제 'Hello! Contemporary Art'에서도 짐작되듯이 우리시대에 진정 해결해야할 과제는 대중과의 소통, 즉 서로간의 호흡 나누기일 것이다. 자주 되풀이되는 단어이긴 하지만, 우리는 그 실마리를 '실험정신'에서 찾으려고 한다.

'실험정신'을 싹틔우는 터전의 의미로서 '야생 서식지野生 棲息地 wildlife habitat'를 염두에 둔 이 전시는 정형화된 실내 전시공간에서 벗어나 강변 모래벌판과 숲에서 해프닝을 행하던 이전세대 대구미술인들의 태도를 떠올리듯, 광장과 거리, 건물의 안과 밖 경계를 드나들며 대중을 향한 예술 소통 인터페이스의 확장을 실험하려는 장이다.

이기철의 실험 설계 : 'Rabbit', 'Fat pet', 'Mirror' 시리즈 설치미술

어느 날 우연히, 회색 털로 무장한 야생토끼 한 마리가 도심 속 건물 안으로 들어와 이곳저곳을 휘젓고 뛰어다니다가 자신이 머무를만한 적당한 자리를 찾았는지 여기 공간에 서식하기 시작했다. 이 야생토끼는 연약하고 부드러운 초식동물로 보이지만 주변의 다른 야생동물들을 공격할 정도로 강인했고, 야생 환경에 적응하여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몸을 다른 동물의 형태로 변형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야생토끼는 생태계 내에서 최상위 층을 차지하는 존재가 되었고, 격이 다른 야생토끼의 형상을 본받아 자신의 모습을 바꾸려는 동물이 있을 정도가 되었다. 이 같은 토끼의 야생성도 주목할 만하지만, 그 서식지가 되어버린 건물 혹은 이 도심지역의 여건과 지나온 내력 역시 예사롭지 않아 흥미롭다.

건물의 기둥과 유리벽 창틀 사이를 어슬렁거리며 비집고 머리를 내밀어 우리를 빤히 쳐다보거나 긴 의자 아래에서 두 다리를 뻗고 낮잠을 즐기고 있는 야생토끼의 모습에서 "새로운 환경에 도전하는 강인하면서도 여유로운 생존 태도", "진지하게 몰입하면서도 놀이처럼 즐기는 삶"을 살아온 실험예술가들의 이미지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건물 2층 계단과 벽 사이를 기어 다니는 문어와 대나무 숲 사이를 헤엄치는 3.5미터 크기의 털 달린 상어는 엉뚱하고도 자유로운 정신을 엿보게 하고, 가림막 사이에 숨어 있는 토끼가면의 고양이에게서 예민하고 수줍은 감성을 짐작하고, 여러 마리의 쥐들 가운데 왕으로 군림하는 토끼의 모습에서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철학자를 떠올리기도 한다.

건물 실내의 출입문 천정 위에는 자신의 자연 체형을 잃어버리고 비대해진 야생동물의 무리가 기념탑처럼 멈춰 선 자세로 버티고 있다. 브레멘 음악대를 따라 흉내 내는 살찐 당나귀와 개, 그 위에 올라선 고양이와 닭, 그 옆에서 웃거나 간지럼을 타는 살찐 개들, 여행을 떠나는 듯 가방을 매고 있는 비만 개와 사막여우들은 그들 몸의 색상만큼이나 유쾌해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 동물들의 모습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편리와 안정에 익숙해진 상태에 대한 불안을 감지하게 되고, 야생을 잃지 않도록 스스로의 경계와 긴장을 놓치지 않으려는 야생동물의 비애와 냉소, 반성을 동시에 읽을 수 있다.

거리 풍경과 이어지는 건물 밖 광장에서는 점차 비대해진 실제 크기의 말과 사슴, 곰이 야생의 상태를 그리워하듯 건물 주위를 배회하고 있는데, 이들 야생동물들은 자신의 가죽 표피를 장식하고 있는 작은 거울조각의 반사 빛 때문에 무척 아름답게 반짝이고 있다. 이들 뚱뚱한 동물들은 화려한 빛을 반사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면서 관객이 자기 스스로를 들여다보며 성찰하도록 권하는 예술적 위트를 자랑하고 있는 듯하다.

류재하의 실험 설계 : '미디어아트@스트리트'와 3층 유리벽 설치영상

2014년 10월7일 오후8시, 어두운 밤하늘을 배경으로 봉산문화회관 건물과 주변 거리 벽면에 한줄기 빛이 스며들더니 20여 개의 빛줄기가 점차 제자리를 잡기 시작한다. 야생이라 할 만한 거친 빛들의 움직임이 140여 미터에 이르는 봉산문화회관 북측 거리 이곳저곳의 옛 동네 건물들을 훑어지나간다. 이 움직임은 사라져가는 옛 동네와 현대적인 신축건물의 벽면에 우리시대의 상징인 디지털미디어를 적용시켜 초현대적인 몰입환경의 사태를 요청하는 신호이다.

높고 낮은 건물의 상하좌우 가장자리와 전후방으로 굴곡이 있는 다양한 건물 벽면 형태를 따라 빛과 색, 점, 선, 면들이 새로운 형상성을 조형해내고, 건물의 생성, 사라짐과 함께 다양한 이미지의 변모를 엮어낸다. 거칠면서 숨 가쁘게 휘몰아치는 빛의 움직임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야생이다.

Camouflage series no.1_ mixed media_340×160×140cm_2012

Walking rabbit_ mixed media_80×70×65cm_2012

브레멘즈_ Resin in color_95×77×30cm_2012
간지러워_ Resin in color_46×42×25cm_2012
Haaaaa~_ Resin in color_41×35×28cm_2012
여행을 떠나요_ Resin in color_60×57×40cm_2012

느리게 걷다가 갑자기 달리기도 하고, 가녀린 선율을 따르다가 하늘을 향해 고함을 치는 벼락같은 영상으로 변화해가는 빛 그림 들은 건물의 면을 따라 덧씌워지면서 건물과 거리의 생명감이 요동치게 한다.

'미디어아트@스트리트' 의 4가지 장면에 대한 작가의 설명은 이렇다.
하나, 해와 달과 별 그리고 하늘. 숫자는 무작위로 등장하는데, 단순한 숫자 나열에 의한 현재적 상황들을 조형화하고 나아가 미래에 대한 지향을 상징하기도 한다. 이어서 졸업앨범 속 인물 이미지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작가로서는 진지한 접근이다. 영상 쇼를 실행하는 대구초등학교의 장소성과 관계되는데, 1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대구초등학교의 졸업 앨범은 지나온 어린 시절의 초상이다. 또한 소년시절의 기억 속에 남겨진 동네 이미지와 아이들의 모습이 추억의 레이어 층처럼 겹쳐진다.

둘, 봉산의 시간. 봉산문화회관 건물을 비롯하여 주변거리에 연이은 동네 건물들과 운동장 주변에 심겨진 나무들을 대상으로 색상의 전환과 이미지 공간의 분리를 실험한다. 영상을 통하여 풍경 이미지에서 나무를 떼어내기도 하고 풍경의 일부로 묻히거나 사라지게 하는 시도이다.

셋, 무제. 새떼가 날아 움직이는 장관을 조형적으로 편집한 영상이다. 이 영상은 주로 인간정서를 자극하는 하나의 도상으로서 불행, 우울, 극적인 장면 등의 감성을 표현한다. 작가의 경우, 밤하늘의 기러기, 새떼 등은 왠지 슬픈 감성을 주지만 슬픔을 승화한 어떠한 희망을 느끼게도 하고, 그 때문에 가끔 희망, 소망을 기원하기도 한다. 이어진 영상 '마티스의 춤'에서 우리는 축제, 제의식, 기쁨, 슬픔 등을 복합적으로 연상한다. 작가가 동네를 배경으로 마티스의 그림을 비추는 것은 무작위적 선택이었지만 가장 마음에 드는 선택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선택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동네는 삶이 이루어지는 작은 공동체 단위로서 다양한 정서를 품고 있다는 것이다. 동네는 단순한 정서 이상의 인간관계 지향, 특히, 유년기 시절의 기억, 추억, 미래에 대한 꿈 등이 발생하는 장소로서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곳이다.

넷, 아리랑. 처음 시작되는 영상은 거리를 걷는 사람들이다. 거리의 사람들을 그림자로 표현하였으며, 광화문 작품을 제작할 때에 의도적으로 연출하여 촬영한 것이다. 그림자 이미지, 특히 남녀의 장난치는 모습, 어린아이의 모습 등이 재미있고, 아름답기도 해서 동네란 이미지와 연결된다. 다음 영상은 옛 동네의 집들. 미디어아트 작업이 전개되는 바탕인 옛 동네의 뒤편에는 전혀 다른 이미지의 아파트가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처럼 상반되는 이미지는 아파트가 동네를 잠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옛 동네에 미디어 영상이 연출되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상관관계가 반대로 전개된다. 옛 동네가 생명력을 부여받아 살아있는 야생 생물체처럼 아파트를 잠식하는 느낌을 준다. 매우 아이러니한 풍경이다.

이것은 생명감 넘치는 빛의 변화와 운동에 따라 건물이 살아 움직이는 감동의 전율 자체이다. 이러한 빛과 색, 점과 선들의 실험은 이 건물의 벽면에서부터 시작되어 오랜 시간 동안 이곳을 서식지로 여기는 야생의 기억과 겹쳐지면서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짐작된다.

이 전시에서 언급하는 "야생 서식지"는 1978년과 연결된 현재, 그리고 그 연계 지역과 공간, 실험적인 전시 형태가 조직되는 생육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으며, 이것은 주로 실험정신과 남다른 태도를 주목해온 그간의 봉산문화회관 전시기획 내력을 볼 때, 이곳 봉산문화회관이 야생 서식지를 닮았고 앞으로 그 역할을 하리라는 기원적 의미의 설정이다. 이 전시는 대구출신의 비디오아티스트 박현기를 비롯하여 김영진, 이강소, 최병소, 이현재 등에 의해 최초의 집단적 비디오 아트가 소개되었던 1978년 "제4회 Contemporary Art Festival DAEGU"를 기점으로 현재에 이르는 대구의 실험미술(Contemporary Art), 특히 현재의 영상 설치 미술을 소개하며 그 의미를 재고하려고 준비하였다. 그리고 1978년에서 2014년으로 이어지는 실험정신의 연결 기반이 '야생'일 것이며, '야생'을 생육해온 서식 지역으로서 대구를 다시 기억하고, 또한 지리적으로 그 중심부에 위치한 봉산문화회관이 그 '서식지'의 주요 지역임을 인식하려는 것이다.

이 같은 전시의 의미 설정을 위한 기준 개념은 1) 1978년의 실험정신 계승, 2) 빛의 이용, 3) 새로운 전시 공간, 4) 대중과 밀착된 호흡, 5) 지역의 중견작가와 신진작가 사이의 매칭 관계 등이었다. 이에 따르는 1978년의 실험정신과 당시 미술가들의 행위에 관한 현재와의 연결성은 류재하의 미디어 영상작업과 이기철의 설치미술 전시 설계를 통해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으며, 이들 작가 2명의 실험적인 태도를 선택적으로 조명하면서 우리시대 실험미술가의 "태도"와 그 이전의 기억들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

정종구

Man&Woman_ 영상설치_00:03:00_2014

미디어아트@스트리트_ 영상설치_00:21:30_2014

2015 Hello! Contemporary Art Ⅰ『홍순환』展

'2015 Hello! Contemporary Art'는 두 개의 개별 전시를 연결하여 상호 연계하고 확장하며 오래된 기억들을 발견해내는 기대期待 형태로 설계한다. 동시대 미술의 '야생 서식지'를 떠올렸던 지난해 'Hello! Contemporary Art' 전시와는 달리 '정원庭園'을 어슬렁거리는 우리시대 어느 인간의 생태를 떠올리게 하는 올해 전시 설계는 정형화된 실내 전시공간과 더불어 건물 밖 광장과 거리의 경계를 드나들며 대중을 향한 예술 소통 인터페이스의 확장을 실험하려는 동시대 미술의 장이다.

'중력의 구조, 3600개의 물'

이게 뭐지? 낯선 시선으로 머뭇거리는 사람들. 햇빛이 눈부신 바다와 파도? 혹은 빙산 주변에 떠다니는 투명한 얼음조각? 정도를 떠올리고, 그것 사이사이에 보이는 돌들은 섬 아니면 징검다리가 아닐까하고, 다른 한편에 설치된 뿔은 무거운 짐을 드는 기중기 같다며 거리를 지나던 사람들이 멈춰 서서 기념촬영을 한다. 이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래 수많은 생성과 소멸 현상, 인류 역사와 신화를 간직한 채, 도심 속 이곳저곳을 휘젓고 다니다가 이곳 시간과 공간의 얼개 상황에 모여들어 일정기간 구체적인 형태로 정착하게 된 '3,600개의 물'이다. 이 물은 투명 비닐봉지의 크기에 맞게 1.5ℓ 정도씩 나누어 담겨져 원래의 물과는 다른 외형으로 개체화된 채로, 봉산문화회관 건물 앞 광장 바닥에 13×7.5m 크기의 직사각형과 그 옆으로 5.5×7.5m 크기 곡선도형 형태로 자리 잡은 것이다. 주변 건물과 거리를 배경으로 넓게 펼쳐진 물의 배열 규모는 그 자체로도 낯선 풍경이지만, 개체화된 한 개의 물 역시 경이驚異롭적이다. 비닐봉지에 물을 가두려고 묶은 매듭이 바닥을 향하면서 맞고 투명한 물이 수직적 압력에 의해 바닥면에 밀착되어 바닥상태가 확대되어 선명하게보이는 현상과 공기와 닿는 물표면의 수평적 확장 상태는 흥미롭다. 그리고 직사각형의 물 배열 사이에는 무게가 상당한 한 아름 크기의 강돌 32개가 직선적 연결선 혹은 흩어진 점으로 놓여있는데, 오랜 시간동안 물에 씻기고 다듬어진 돌의 내력과 수직적 힘의 작용을 의도하면서도 인과성因果性이 느슨한 우연처럼 설정되어있다. 한편, 곡선도형 형태의 물 배열에는 3m 길이 스테인리스 봉 10개를 뿔 모양으로 세우고 그 윗부분의 끝을 서로 겹친 구조물을 볼 수 있다. 마치 움막 형태의 집을 상징하듯 보이는 구조물의 가운데 허공에는 붉은색 물이 든 상당한 길이의 투명 비닐호스가 한 덩어리로 묶여져 매달려있다. 그 물 덩어리 무게만큼의 수직적 힘이 봉 끝의 매듭 결속을 당기며 구조적 견고성을 유지하게 되는 양상이다. 작가 홍순환은 이러한 상황들을 아울러 '중력重力의 구조構造, structure of gravity'라고 읽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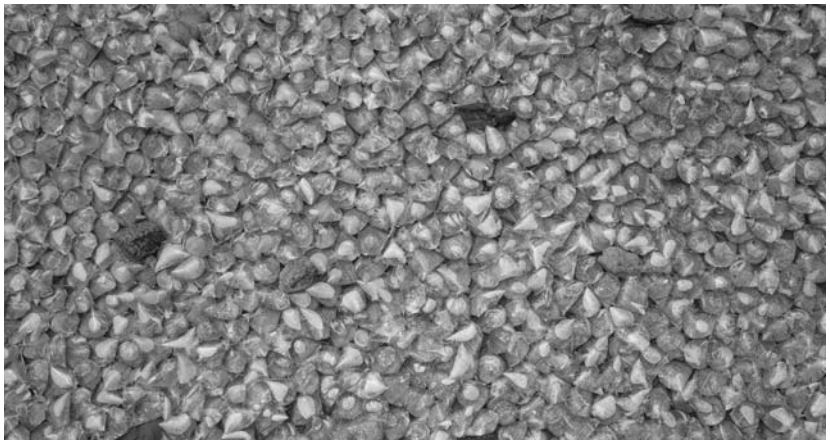
지구에 갑자기 중력이 사라진다면 '3,600개의 물'은 어떤 상황에 이를까? 당연하지만,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물체와 물체들이 지구 표면에 그대로 있기란 어렵다. 그 뿐만 아니라 삶에 관한 인식과 태도 같은 근본적인 것들이 변할 것이다. 중력은 우리 생활 전반을 관할하고 규정한다. 홍순환은 "중력은 우리가 가치를 판단할 때 인식하는 총체적 환경을 조율하는 보이지 않는 힘의 작용이며, 인류의 역사적인 범주에서 포괄적인 가치를 생산하고 규정지어 온 근거로서 작용한다. 중력과 연관된 이런 일련의 작업들은 인류의 역사에서 생성, 소멸했던 사실들을 서사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수직적인 압력과 그 반작용인 수평적인 평창을 기준으로 충돌, 정복, 도피, 생존, 기후 등에 의한 공간적인 이동에 관한 것이다."이라고 말한다. 이 전시는 아마도 언제나 가까이 있지만 침묵하는 자연 법칙의 힘에 대한 인간의 인식과 대응 태도 정도로 이해할 수 있으며, 만유인력과 지구의 원심력 등 중력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성립된 현상과 관계, 지식, 관념들을 불변의 진리로 인식하는 우리 자신을 고찰하여 신뢰가 전복되는 부조리不條理 상황에 대하여 질문하고, 이를 시각화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중력을 증명하는 구체적인 사례 중 일부이기도한 야외광장의 '3,600개의 물'은 오랜 시간과 반복적이고 단순한 인간의 신체행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 이 신체행위는 중력의 정연하고 물리적인 신뢰에 반하는 불확정적인 마음과 태도에 기인하며 부조리성과도 연관된다. 따라서 자연을 발췌하는 감성과 마음, 인간 신체행위의 조형적 결과를 닮은 점에서 이 전시 상황을 자연 생명감이 충만한 '정원庭園'에 은유하고, 우리를 물끄러미 바라보듯이 설치된 물들의 서사에서 '자연', '생명', '생존'을 기억하여, 관객이 자기 스스로의 모습을 들여다보며 정원을 어슬렁거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자연과 인간 사이의 관계 설정, 관객 연결과 공유, 상황 몰입 등의 실험은 40여 년 전, 이 지역을 생육지生育地로 여기는 동시대미술에 대한 기억과 겹쳐지면서 지금 미술의 논의에 대한 실마리를 제안한다.

이번 전시에서 언급하는 '정원'은 1977년과 연결된 현재의 이곳, 그리고 그 당시의 자연과 인간 행위가 만나는 공간, 실험적인 전시 형태가 조직되는 생육의 상황을 상상하고 있으며, 이것은 주로 예술가의 실험정신과 남다른 태도를 주목해온 그간의 봉산문화회관 장소 특정성을 볼 때, 이곳이 실험적 현대미술 서식의 '정원'을 닮았고 앞으로 그 역할을 하리라는 기대 의미의 설정이다. 이 전시는 1977년 4월30일 시민회관에서 개최된 "제3회 Contemporary Art Festival DAEGU" 전시의 야외 특별 전시로 5월1일 진행했던 '낙동강 강정 백사장'에서의 해프닝, 이벤트를 기점으로 현재에 이르는 대구의 실험미술(Contemporary Art), 특히 야외 설치전시의 일면을 소개하며 '자연'과 '예술 행위'의 의미를 재고再考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1977년에서 2015년으로 이어지는 설치미술 관련 태도의 연결 기반이 '실험'과 '자연', '신체 행위', '몰입'이며, '실험적 태도를 생육해온 서식 '정원'으로서 여기, 대구를 다시 인식하려는 것이다. 1977년의 실험정신과 당시 미술가들이 전시공간의 경계를 확장하여 대중과 함께하려는 시도에 관한 현재적 연결성은 홍순환의 '중력의 구조' 야외 설치와 김성수의 '꽃밭에 놀다' 실내 설치를 통해서 가늠할 수 있으며, 연계되는 이 두개 전시의 실험적인 태도를 선택적으로 조명하면서 우리시대 실험미술가의 '태도'와 그 이전의 기억들을 다시 돌아보려는 이 전시는 우리시대의 진정성을 반영하려는 예술의 사회적 습관이 미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리라는 기대를 포함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서술을 배경으로 우리가 주목해야할 홍순환의 태도는 자연성自然性과 부조리不條理를 꿰뚫는 직관적 감수성을 지속하면서 실천적 삶에서 나타나는 인식과 태도의 기원을 고찰하여 동시대미술의 지평을 확장시키며, 그 소통 가능성을 실험하는 탁월성의 제시이다. 따라서 작가의 작업 설계에 대한 이 '바라보기'는 과거에 이어 새롭고 분명해질 미래의 어떤 순간을 위한 'Hello!'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정종구



중력의 구조-3600개의 물_ 물, 바닐주머니, 돌, 비닐호스 스테인리스 봉_가변설치_2015

2015 Hello! Contemporary Art Ⅱ『김성수』展

'2015 Hello! Contemporary Art'는 두 개의 개별 전시를 연결하여 상호 연계하고 확장하며 오래된 기억들을 발견해내는 기대 期待 현태로 선계한다. 동시대 미술의 '야생 서식지'를 떠올렸던 지난해 'Hello! Contemporary Art' 전시와는 달리 '정원庭園'을 어슬렁거리는 우리시대 어느 인간의 생태를 떠올리게 하는 올해 전시 설계는 정형화된 실내 전시공간과 더불어 건물 밖 광장과 거리의 경계를 드나들며 대중을 향한 예술 소통 인터페이스의 확장을 실험하려는 동시대 미술의 장이다.

'꽃밭에 놀다'

입구에 들어서면, 전기톱으로 거칠게 깎은 작은 얼굴 조각상이 자연 빛을 받아 매력적인 음영의 굴곡을 선보인다. 동시대 조각에 관한 작가의 태도를 설명해주는 이 한 점의 나무 조각을 시작으로 어두운 몰입환경의 전시공간에는 '김성수'식의 소통과 참여를 실험하는 조각 설치, '꽃밭에 놀다'가 펴쳐진다.

가로, 세로, 높이 3.6미터 크기의 실내 '꽃밭'은 거리를 두고 감상하는 하나의 대상이면서, 독립적인 각자의 면모와 사연을 가진 13그루의 대형 꽃대와 새, 벌, 나비, 동물, 사람을 아우르는 마당, 즉 상황 연극에서처럼 참여를 기다리는 무대이다. 나무로 거칠게 조각한 꽃과 잎을 보면서 50센티미터 높이의 계단에 올라서면, 맨 먼저 손에 감지되는 것이 무대 오른편에 밝은 색 원피스를 입고 두 손을 모은 여인 조각상의 거친 나무 촉감이다. 주위를 둘러보면 3명의 여자와 4명의 남자가 눈에 띄는데, 그 중심에는 두 손을 허벅지 위에 붙이고 빨간 꽃봉오리 위에 앉은 노란 원피스의 여자가 보인다. 또 멀리 하늘로부터 꽃밭 위로 날아드는 파란색 바지에 노랑머리 여자, 꽃봉오리를 잡고 바람 따라 일렁이는 빨강 상의의 남자, 날개를 펴고 꽃대를 당겨보는 노랑바지 남자, 꽃봉오리를 꼭 껴안은 빨강 옷 남자, 붉은 넥타이를 매고 손에 붉은 꽃다발을 든 남자 등이 있다. 11세 소년의 감수성과 기억으로부터 조각된 이들은 꽃밭의 요정처럼 관람객에게 함께 어울려 놀기를 권유한다. 작가의 꽃은 성주 선남면에 위치한 작업실 '목유정' 주변에서 자주 보는 모란, 맨드라미, 튤립, 백합, 엉겅퀴 꽃들로서, 가까운 곳에서 구한 은행나무 덩어리로 거칠게 조각하고, 예전에 허물어진 엎집의 서까래를 꽃대로 끼워 꽃 기둥을 만들어 그 표면에 원색으로 색칠한 것인데, 오래전부터의 개인사 혹은 잊혀져가는 주변의 사연을 기억하려는 작가의 태도와 은유가 스며있는 듯하다. 무대 위의 꽃 사이를 거닐다가 계단을 내려서서 '꽃밭' 주위를 돌아보면 어두운 구석에 통나무를 거칠게 조각하다가 그만둔듯한 양 한마리가 있다. 또 몇 발자국 더 나아간 출구 근처 어두운 벽면에는 작가를 닮은 작은 꼭두 인형이 손에 꽃을 들고 배웅하듯 관람객의 여운을 달래준다.

이전까지 작가의 작업에서는 혼자가 된 소년시절 자신의 아픔과 상처에 관한 치유, 남고 싶은 욕망, 꿈을 다루었다면, 이번 전시에 출품한 작업들은 한층 성숙한 꿈. 어느 것에도 거리낌 없이 드라마틱한 즐거운 놀이 그대로의 시각적 형상화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작업들은 관람객이 작품 가운데에 참여하여 감상하는, 즉 '꽃밭'에서 노니는 작가와 관객의 상상이 만나는 무대라 할 수 있다. 이 전시는 자연 생명감이 충만한 '꽃밭'과 그 사이를 어슬렁거리며 노는 인간이 함께 살아 움직이는 연극적 전율 상태를 기대한다. 이러한 자연과 인간 사이의 관계 설정, 관객 참여와 공유, 연극적 상황 몰입 등의 실험은 40여 년 전, 이 지역을 생육지나 경계로 여기는 동시대미술에 대한 기억과 겹쳐지면서 지금 미술의 논의에 대한 신마리를 제안한다.

이번 전시 설계는 1977년 4월30일 시민회관에서 개최된 "제3회 Contemoorary Art Festival DAEGU" 전시의 야외 특별 전시로 5월1일 진행했던 '낙동강 강정 백사장'에서의 해프닝, 이벤트를 기점으로 현재에 이르는 대구의 신현미술(Contemporary Art), 특히 야외 설치전시와 실내 전시의 연결성을 소개하며, '참여'와 '놀이'의 의미를 재고再考하려는 것이다. 이 전시에서 언급하는 '꽃밭', 혹은 '정원'은 그 당시와 연결된 현재의 이곳, 다시 말해 자연과 인간 행위가 만나는 공간. 실험적인 전시 형태가 조직되는 생육의 상황을 상상하고 있으며, 이것은 주로 예술가의 신현정신과 남다른 태도를 주목해온 그간의 봉산문화회관 장소 특정성을 볼 때, 이곳이 실험적 현대미술 서식의 '정원'을 담았고 앞으로 그 역할을 하리라는 기대 의미의 설정이다. 그리고 1977년에서 2015년으로 이어지는 설치미술 관련 태도의 연결 기반이 '실험'과 '자연', '참여적 놀이', '몰입'이며, '실험'적 태도를 생육해온 서식 '정원'으로서 여기, 대구를 다시 인식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실험정신과 당시 미술가들이 전시공간의 경계를 확장하여 대중과 함께하려는 시도에 관한 현재적 연결성은 김성수의 '꽃밭에 놀다' 실내 설치와 홍순환의 '중력의 구조' 야외 설치를 통해서 가늠할 수 있으며, 연계되는 이 두개 전시의 실험적인 태도를 선택적으로 조명하면서 우리시대 실험미술가의 '태도'와 그 이전의 기억들을 다시 돌아보려는 이 전시는 우리시대의 진정성을 빈영하려는 예술의 사회적 습관이 미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리라는 기대를 포함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서술을 배경으로 우리가 주목해야만 김성수의 태도는 자연성自然性을 꿰뚫는 직관적 감수성을 지속하면서 연극적 상황을 다루는 입체조각을 탐구하고, 나무의 호흡을 그대로 살려내는 조각 행위를 통하여 순수 미적 감성의 지평을 확장시키며, 그 소통 가능성을 실험하는 탁월성의 제시이다. 따라서 작가의 조각 설계는 거칠고 순수한 나무의 충만한 감수성과 에너지를 선보이면서 동시대적 미술의 실험과 자율성, 서술과 조형, 이상과 현실의 긴장이 있는 입체 미술을 기억하도록 한다. 이 기억에 대한 '바라보기'는 과거에 이어 새롭고 분명해진 미래의 어떤 순간을 위한 'Hello!'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정종구

이번전시는 개인의 정체성과 한국적 미의식을 바탕으로 주변 사람과 함께 소통하고 공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어릴적 자유롭지 못한 아픔 때문에 열등감 속에서 우연히 보게된 꽃상여와 '꼭두'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다. 세속의 삶이나 경쟁과는 상관이 없는 꿈과 이상의 세계였다. 그 안에 나의 꿈도 함께 있었다. 지금 그 꽃을 만들고 있다.

유년시절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그 꽃들은 모란, 맨드라미, 백합, 엉겅퀴 등 작업실 주변에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꽃들이다. 상대적으로 큰 꽃 속에 사람은 작다. 꽃을 안고 있거나, 앉아있는 사람, 멍하니 서있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작다. 나의 11살 소년의 어릴적 모습을 형상화했다. 큰 꽃들은 어린소년의 꿈을 극대화 시킨 형상이다. 때론 소인국의 이야기와 피터팬의 주인공처럼 현재의 꿈을 옮겨 놓은 꽃밭에서 꿈을 나누고, 회상하는 힐링의 장소가 되었으면 한다.

김성수 작가노트

꽃밭에서 놀다_ 나무에 채색_3.62×3.62×3.6cm_2015

2016 Hello! Contemporary Art Ⅰ『리우』展

'Hello! Contemporary Art' 전시는 동시대성에 관한 참조를 기반으로 하는 감성들을 상호 연결하고, 공유하여, 확장할 수 있는 선계를 지향한다. 지난 2014년, '야생 서식지'를 떠올렸던 미디어아티스트 류재하와 조각가 어기철의 야외설치 전시를 시작으로, 야외광장에 3600개의 비닐 물주머니를 설치한 홍순황과 나무 조각으로 조성한 실내 꽃밭을 선보였던 조각가 김성수가 참여했던 2015년 전시에 이어, 또 다른 가능성의 '정원庭園'을 상상하게 하는 올해 2016년 전시는 '컴퓨터 정원'의 실내 전시공간과 함께 야외 공간에 설치한 '사이버 정원'의 경계를 드나들며 관객을 향한 예술 소통 인터페이스의 확장과 동시대 미디어아트의 다양한 가능성들을 신헌하려는 장이다.

'사이버 정원-사이를 거닐다'

거리를 거닐다가, 느닷없이 등장한 낯선 인물조각상을 바라보며 머뭇하는 사람들, 2층으로 연결되는 계단 입구에 서있는 'Ratava(가상사회에서 자신의 분신 이미지를 의미하는 'Avatar'를 역순으로 표기한 작가의 조어造語, Avata는 신이 인간의 몸을 빌리지만 Ratava는 인간이 신의 영역에 다가가는 의미)'는 은빛 금속의 신체뿐만 아니라, 두 팔로 들어 올린 해골과 얼굴 속에 장식용 붉은 조화造花를 가득 담고 있어 낯선 세계의 입구임을 알려준다. 작가의 설명에 의하면, 이 인물상은 죽음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신의 영역에 다가서는 인간에 대한 은유이다. 계단을 따라 위로 시선을 옮기면, 세 개의 팔과 여러 면의 얼굴을 가진 은빛 사이보그cyborg가 의자에 앉은 채, 관객의 입장을 알리려는 듯 종을 흔들어 소리를 낸다. 이어진 2층 공간에 다다르면, 현실이 아닌 듯 햇빛을 반사하며 번쩍이는 은빛의 공간을 만난다. 회색 건물과 붉은 벽돌바닥으로 감싼 작은 정원, 바다 가운데 떠있는 섬처럼 소나무와 키 낮은 식물들의 중앙에 은색 판 바닥이 자리한 것이다. 그 위에는 대화를 나누듯 배치된 은색의 조각상들이 보이는데, 우리와 시선을 마주하는 첫 번째 조각상은 미의 여신 비너스를 모방하여 인공의 성형미를 강조한 'Cynus(Cyber-venus)'이다. 그 왼편에는 영상미디어 얼굴과 여러 개의 팔을 가진 빈인반마半人半馬 '켄타우로스Kentauros'의 뒷모습을 볼 수 있고, 오른편에는 식물로 대체한 두상과 동물의 하반신을 결합한 작은 '켄타우로스'가 서 있다. 작가의 사이버 정원에서는 DNA 변형과 복제, 디지털 조작으로 영상미디어와 동물, 식물이 결합한 변형된 인류의 모습이 등장한다. 정원의 소나무 옆에는 제우스를 비롯한 신들의 의사를 전달하는 전령傳令 '헤르메스Hermes'가 디지털 정보의 이동을 관장管掌하듯 팔을 들어 수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어서 붉은 벽돌바닥을 따라 좌측으로 건너가면, 쇠를 먹는 상상의 동물 '불가사리' 조각상을 작가가 각색한 새로운 스토리 영상과 함께 만날 수 있다. '불가사리'의 좌측에는 철기문화를 상징하는 가야시대의 무사상, 'Gaya伽倻'를 볼 수 있다. 초기 청기문명과 비교하여 디지털 문명의 발전과 미래를 생각해보는 작가의 사유가 담겨진 조각상이다. '가야'상 뒤편으로는 자유롭게 날아다니기를 염원하는 인간의 기원을 반영한 포스트 휴먼 'Angel'. 장자의 호접몽胡蝶夢에서 착안하여 디지털 세계에서의 사유와 의식의 확장, 뇌 과학의 발전, 신의 영역에 다가가려는 인간의 욕망을 은유하는 '사이버 호접몽', 동물과 식물과 사이보그의 경계가 사라지는 포스트 휴먼을 상징하는 'Ratava'가 서 있다. 이들 조각상들이 지닌 은유는 작가가 상상하는 '사이버 정원'의 이해를 위한 참조 키워드라 할 수 있다.

이 전시의 기본설계는 '현실과 가상', '자연과 문명', '휴먼과 포스트 휴먼', 그리고 그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낯선 감성, 즉 '미디어'를 통해 확장되는 현실 속의 낯선 공간을 산책하려는 제안이다. 작가 리우는 봉산문화회관 2층 야외공간을 '가상' 혹은 '공상'이라는 의미의 사이버 정원으로 조성하고 그 정원 사이를 산책하며, 인문학人文學의 상상想像과 자연과학自然科學적 물리物理 사이의 경계를 넘나드는, 어쩌면 즉흥적이고 직관적인 '놀이'를 닮은 작업 영역들을 구축해낸다. 작가는 2008년 '유리상자-아트스타' 전시에서 컴퓨터 게이스의 금속판과 디지털 영상을 조합하는 방식으로 제작한 화성 인물조각 '사이버 호접몽'을 선보인 후, 지금까지 현실의 인체를 대체하는 가상의 몸을 상상하고 이를 영상미디어와 함께 입체조각으로 제작하는 작업을 꾸준하게 발표해왔다. 이번 전시에서 그는 사이버 세계를 상징하는 컴퓨터를 해체한 은빛 금속판으로 디지털 요소와 결합하여 마치 커다란 컴퓨터의 내부를 연상시키는 '사이버 정원'의 풍경을 구현한다. '사이버 정원'은 꽃과 풀, 나무가 조성된 익숙한 일상의 자연 상태와 그 자연이 금속판으로 구축된 구조물 속에 담겨지거나 감싸는 낯선 모습의 풍경이고, 그 사이를 서성이는 조각상들은 인공신체, 사이버인간, 아바타, 혹은 미래의 새로운 인류처럼 해석되며, 관객은 작가가 제시한 그 사이를 거닐며, 어쩌면 익숙하지만 낯선 시간과 공간의 상상을 경험하게 된다. 이 전시는 상상과 과학기술 등 인류 스스로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성립된 지식과 문명, 발전을 인식하는 우리 자신의 태도, 또 신뢰가 전복될 수도 있는 부조리不條理 상황에 대한 질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연을 발췌하는 감성, 인간 신체행위의 조형적 축적蓄積을 고려한 점에서 이 전시 상황을 자연 생명감을 엄원하여 인상 삶의 공간에 인공적으로 조성한 '정원庭園'에 은유하고, '자연', '생명', '생존'을 기억하며, 관객이 자기 스스로를 들여다보며 정원을 어슬렁거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자연과 동시대 인간 사이의 관계 설정, 관객과의 공유, 생활 몰입 등의 실험은 40여 년 전, 이 지역을 생육지生育地로 여기는 동시대미술에 대한 기억과 겹쳐지면서 지금의 미술에 대한 논의를 제안한다.

이번 전시에서 언급하는 '정원'의 기억은 1977년 4월30일 시민회관에서 개최된 "제3회 Contemporary Art Festival DAEGU" 전시의 야외 특별 전시로 5월1일 진행했던 '닉동강 강정 백사장'에서의 해프닝, 이벤트를 기점으로 현재에 이르는 대구의 신헌미술(Contemporary Art). 특히 야외 선치전시의 인맥을 소개하며 '자연'과 인간의 '예술 행위'가 만나는 의미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이 전시는 지금, 여기로 이어지는 설치미술 관련 태도의 연결 기반이 '실험'과 '자연', '신체행위', '몰입'이며, '실험'을 생육해온 서식지 '정원'으로서 대구를 다시 기억하고, 1977년의 실험정신과 당시 미술가들이 전시공간의 경계를 확장하여 대중과 함께하려는 시도에 관한 현재적 연결성을 가늠하고, '또 다른 가능성'으로서 우리시대 실험미술가의 '태도'를 다시 돌아보려는 기대를 포함하고 있다.

편편, 이러한 서술을 배경으로 우리가 주목해야할 리우의 태도는 디지털 기술이 추구하는 가상성假象性이나 비물질성非物質性과 자연성自然性의 병치에 관한 은유, 그 사이의 부조리不條理를 꿰뚫는 직관적 인식을 시각화하여 동시대미술의 소통 가능성과 지평을 확장시키는 탁월성이다. 따라서 작가의 작업 설계에 대한 이해의 시도는 과거에 이어 새롭고 명확해질 동시대의 어떤 순간을 위한 우리의 'Hello!'일 것이다.

정중구

Gaya_
Computer parts_Digital animation_00:00:25_150×80×250cm_2016

Cyber Garden_ Computer parts_57×90×145cm_2016
Ratava_ Computer parts, Object_65×30×187cm_2016

CYBER GARDEN_ computer parts+monitor_1 370×930×230cm_2016

2016 Hello! Contemporary Art Ⅱ『권혁규 김형철 서상희』展

'Hello! Contemporary Art' 전시는 동시대성에 관한 참조를 기반으로 하는 감성들을 상호 연결하고, 공유하여, 확장할 수 있는 설계를 지향한다. 지난 2014년, '야생 서식지'를 떠올렸던 미디어아티스트 류재하와 조각가 이기철의 야외선치 전시를 시작으로, 야외광장에 3600개의 비닐 물주머니를 설치한 홍순환과 나무 조각으로 조성한 실내 꽃밭을 선보였던 조각가 김성수가 참여했던 2015년 전시에 이어, 또 다른 가능성의 '정원庭園'을 상상하게 하는 올해 2016년 전시는 '협력 정원'의 실내 전시공간과 함께 야외 공간에 설치한 '샤이버 정원'의 경계를 드나들며 관객을 향한 예술 소통 인터페이스의 확장과 동시대 미디어아트의 다양한 가능성들을 실험하려는 장이다.

'협력 정원에서 놀다'

이 전시를 지탱하는 대략의 에너지는 미술가 3인의 '놀이'이며, 그 장場은 실내 '정원'이다. 즉, 마음껏 놀아보는 마당으로서 정원인데, 그냥 정원이 아니라 '협력 정원'이다. 이것은 3가지 형태의 에너지가 서로 힘을 합하여 서로 도우는 상태로 이루어지며, 정원에 어우러진 연못과 물고기, 식물처럼 작가 각자 작업의 정체성이 명확하면서도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설정이다. 아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모습도 이렇지 않을까하는 가설에서 이 전시는 시작된다. 이 3가지의 에너지는 3인의 미디어아티스트(권혁규, 김형철, 서상희) 각자를 상징한다.

권혁규의 작업은 인간의 인지 감각에 대한 의문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번 작업은 파동이 소리의 다른 형태이며, 모든 움직임이 파동을 유발하지만 인간은 가청 범위 밖의 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점에 착안한 설정이다. 출품작 '가상 소리 프로젝트Virtual sound project-motion sound'는 어항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물고기의 파동 데이터를 인간이 인지 가능한 상상의 소리로 변환하여 관객에게 들려주는 작업이다. 변환한 소리는 테이블 위에 벌집 선치된 76개의 스피커에서 출력되며, 이 소리와 연동하는 링 모양의 파동 이미지가 스피커 위에 영상 맵핑되어 소리를 공감각적으로 인지하도록 설계하였다. 작가는 움직임과 소리의 변환처럼 비물질 데이터의 가변성과 유기적 연계성을 선보이면서 실체가 가진 진실을 다시 회복하려는 인간의 행위를 재고再考한다. 한편, 권혁규는 김형철의 전시작업 중의 일부인 투명한 수조水槽에 자신의 소리작업과 연결된 스피커를 설치하여 수조에 담긴 물이 물리적으로 진동하도록 개입介入하여 협력한다.

김형철에게 미디어는 인간 삶에 관계하는 감정과 본능의 상태를 표현하는 매체이다. 자신의 고민과 갈등, 방황에 관한 경험과 사유를 통해 터득한 '삶의 지도'를 센치와 영상 미디어로 연관하려는 이번 작업은 사랑과 즐거움, 불안, 우울 등 자신에게 충선했던 소중한 감정과 에너지들을 수조에 담은 물과 그 물에 투사하는 영상, 수조가 놓인 공간의 베경 벽면을 가득 채우는 다양한 영상과 소리 미디어로 표현한다. 맑은 물에서 검은색 물로 농담 정도가 단계적으로 변화하는 10개의 수조(35×35×35㎤)를 일렬로 설치하여 인간 각자의 환경과 여건을 설정하는데, 각각의 수조는 투명하고 맑거나, 선하거나, 순한 상태에서부터 불투명하고 어둡거나, 악하거나, 강한 상태에 이르기까지의 정도를 상징한다. 그 스펙트럼 사이에 존재하는 인간 삶의 상황과 감정 상태를 구체 이미지의 디지털 영상으로 투사하여 삶에 관한 단상들을 선보인다. 한편, 김형철은 서상희가 설치해놓은 식물화분을 향하여 여행을 하듯 자신을 상징하는 구체이미지 영상을 투사하여, 식물에게는 빛의 존재로 자신에게는 그 식물이 여행지가 될 수 있도록 개입하여 협력한다.

서상희는 디지털digita 과 아날로그analoguc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회화적 공간을 연출한다. 이는 물리적 형태와 비물질적 상태가 공존하는 세계의 모습, 또 디지털 기술이 발전할수록 그리워지는 아날로그 감성에 관한 작가의 서술이다. 아날로그와 자연생명을 상징하는 실제 식물 화분을 천장으로부터 다양한 높이로 공간에 배치하고 디지털미디어로 편집 제작한 인위적 빛과 영상이미지를 결합하여 '가상의 정원Virtual garden'을 구축한다. 실재와 가상의 애매하고 혼돈스러운 경계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의 연출과 식물을 향하는 관객의 센서 접근에 의한 안공 사운드의 표현은 인위적인 가상의 디지털 기술만으로는 충족될 수없는 아름다움에 관한 인간의 감동을 제안한다. 서상희는 바닥에 설치된 권혁규의 '가상 소리 프로젝트'를 연못으로 가정하고 자신의 식물 화분을 스피커 사이에 배치하여, 스피커로 출력되는 디지털 소리와 자연 식물을 공존시키는 또 하나의 '가상의 정원'을 구축하는 것으로 권혁규의 작업에 개입하여 협력한다.

이들 3가지의 에너지가 상호작용하는 상태를 우리는 '협력 정원'이라고 선정하였다. 3인의 미디어아티스트가 이 '협력 정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태도와 행위는 조화 혹은 혼돈을 겪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은 생명감 넘치는 세계의 생태 환경의 규칙과 인간이 함께 살아 움직이는 과정의 전율일 수 있습니다. 미디어로 통한 이러한 일체의 실험은 세계 모습의 일부를 반영하는 인위적인 '정원'의 한 양태일 수 있으며, 이러한 자연과 동시대 미디어 사이의 관계 설정, 관객과의 공유, 상황 몰입 등의 실험은 40여 년 전, 이 지역을 생육지는곱地로 여기는 동시대미술에 대한 기억과 겹쳐지면서 지금의 미술에 대한 논의를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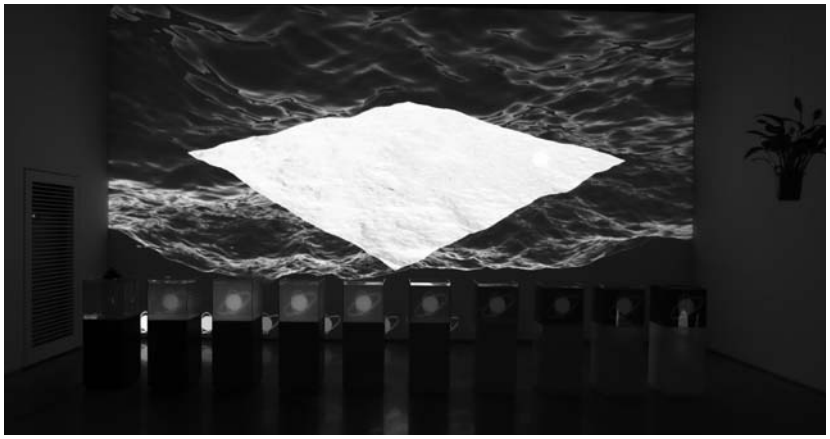
이번 전시에서 언급하는 '정원'의 기억은 1977년 4월30일 시민회관에서 개최된 "제3회 Contemporary Art Festival DAEGU" 전시의 야외 특별 전시로 5월1일 진행했던 '낙동강 강정 백사장'에서의 해프닝, 이벤트를 기점으로 현재에 이르는 대구의 신헌미술(Contemporary Art), 특히 야외 설치전시의 일면을 소개하며 '자연'과 인간의 '예술 행위'가 만나는 의미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이 전시는 지금, 여기로 이어지는 설치미술 관련 태도의 연결 기반이 '실험'과 '자연', '신체행위', '몰입'이며, '실험'을 생육해온 서식지 '정원'으로서 대구를 다시 기억하고, 1977년의 실험정신과 당시 미술가들이 전시공간의 경계를 확장하여 대중과 협께하려는 시도에 관한 현재적 연결성을 가늠하고, '또 다른 가능성'으로서 우리시대 실헌미술가의 '태도'를 다시 톨아보려는 기대를 포함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서술을 벼경으로 우리가 주목해야한 권혁규, 김형혁, 서상희의 태도는 디지털 기술의 가상성假像性이나 비물질성非物質性과 자연성自然性의 병치, 또는 진眞, 선善, 미美에 관한 은유, 그 사이의 부조리不條理를 꿰뚫는 직관적 인식을 시각화하여 동시대미술의 소통 가능성과 지평을 확장시키는 덕릴성이다. 따라서 작가의 작업 설계에 대한 이해의 시도는 과거에 이어 새롭고 명확해질 동시대의 어떤 순간을 위한 우리의 'Hello!'일 것이다.

정중구

권혁규 motion sound-vibration_ 스피커_가변설치_2016

서상희 가상정원-II(virtual garden)_
00:03:00 polycarbonate, plants, video installation 2016



김형철 Seeing_ video installation_ 00:10:00_35×35×95cm 10ea_2016

2017

Hello!
Contemporary Art
야외설치 1977로부터

■ 참여작가 인터뷰

권혁규

김형철

서상희

박정기

연계전시 정재범

■ 참여작가 프로필

■ 참여작가 인터뷰
2017 Hello! Contemporary Art I
야외설치 1977로부터

권혁규작가 인터뷰

봉산문화회관) 이번 전시는 예술가의 실험정신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작업의 실험적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권혁규) 물리적 측면으로 본다면 작품을 제작하는 작가로서 무엇인가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기성화 된 물건들(오브제)로 구성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일상에서 마주하는 자연을 모방한 모조품들은 모양뿐만 아니라 기능과 편리함이 효과적으로 구현되어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이것들로 하여금 자연에 대한 인위적인 행위, 즉 비물질적인 것들을 중첩시키려는 실험을 시도했습니다. 이번 작업 '가상공원'은 인공물에 인위적 행위가 접목된 상태로 인공성이 드러나는 실험적인 공간 설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봉산문화회관) 이번 전시의 주제어는 '정원' 입니다. 정원에 대한 권혁규 작가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권혁규) 정원은 그 자체에 인공성을 포함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정원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인공적 요소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정원은 선택된 자연' 이라고 개인적으로 정의를 내립니다. 왜냐하면 설계하는 사람의 기호가 반영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모습들은 다양하지만 자연물을 자연에서 분리시켜 재배치함으로써 인공물이 됩니다. 또한, 무엇을 옮겨놓았는가는 그 정원의 중요한 가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봉산문화회관) 이번 설치 작업을 시도하게 된 동기나 계기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권혁규) 산책 중 주변 환경을 둘러보다가 그것들을 관찰해보니 일정한 패턴들 혹은 규칙들 같은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한 시점부터 그것들이 인공성이 첨가되어 있는 상태라는 걸 느꼈습니다. 손질되거나 부자연스러운 형태를 한 나무, 다듬어진 돌, 어항처럼 반듯한 연못 등 생각보다 광범위 하였고, 이를 작품에 담아보고자 하였습니다.

봉산문화회관) 요즘은 모방한 것이 오히려 더 진짜처럼 보이고 진짜 같은 가짜들이 많습니다. 가짜가 진짜를 대체하는 상황을 일상생활에서도 느끼시나요? 권혁규 작가는 모조품이 만들어지고 소비되는 것, 가짜가 진짜를 대체하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수현)

권혁규) 일상에서 가짜가 진짜를 대체하는 모습은 흔히 있는 일이 되어 버린 시대이며, 오히려 그것들은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생활 곳곳에 산재해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예컨대 물 마른 어느 계곡의 폭포보다 성능이 좋은 펌프로 만드는 인공폭포를 실제보다 더 실감나게 느끼는 경우가 그 중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는 실제보다 그것이 주는 상징적 의미나 이미지를 소비하는 행태입니다.
때문에 가짜가 진짜를 대체하기 더 좋은 시대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가짜와 진짜를 엄격히 구분할 수 없고, 다소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증명됩니다. 가짜와 진짜는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저는 모조품을 물질과 비물질이 중첩된 사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미와 기능을 반씩 겹쳐놓은 상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별해서 생각하지 않으려는 개인적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짜가 진짜를 대체하는 상황은 시대가 흐를수록 더욱 가속화 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으며, 단지 그것들을 어떻게 인지하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봉산문화회관) 모조품이라 하면 긍정적인 시선보다는 부정적인 시선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모방하는 행위가 살아가면서 매우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기에 인간은 자연을 본떠 무엇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을 모방한 '가상공원'을 보고 있으면 다소 과하게 느껴질 정도로 보호와 통제가 보이는데 이를 통해 작가님은 모조품으로 둘러싼 도시환경을 비판하려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권혁규 작가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길혜민)

권혁규) 아마도 우리는 학습을 통해 오랜 시간 원본(원판)에 대한 중요함을 교육 받아왔기 때문에 모조품에 대하여 막연한 부정을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 모방의 행위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에서 한국화를 전공한 이력이 있는데, 화론서에 자주 나오는 좋은 그림을 그리는 방법론 중 전이모사(轉移模寫)를 중시 여긴 이유도 질문하신 분의 생각과 멀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그러한 법도가 다소 답답했지만, 좋은 경험으로 남아서 작업에 영향을 받고 있는 듯합니다. '가상공원'은 자연을 대하는 인간의 행위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여러 행위 중에 보호와 통제는 서로 다른 개념이지만, 명백하게 분리되기 어려운 경계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시환경을 비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들을 바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봉산문화회관) 권혁규 작가에게 도시(=인공적 환경)는 어떤 의미인가요? (이기선)

권혁규) 효율적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의 인공성, 더 나아가 인공성이라는 것 자체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가지며 기능적 요소가 주어진 상태입니다.
도시는 효율성이 극대화 된 공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최근 울진과 대구를 오가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소규모 단위의 도시 일수록 효율성보다는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인공적이다' 라는 말은 '효율성이 뛰어나다'와 같은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영위하는 것은 각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봉산문화회관) 자연에 대한 권혁규 작가의 감정이나 태도가 궁금합니다. (박규석)

권혁규) 현재의 작업은 디지털미디어를 활용한 작품을 하지만, 2009년도까지는 한국화 작업을 했습니다.
그 중 대부분이 전통 산수화였는데 작품제작을 하기 전에 선행해야 했던 과정들은 현장에 나가 스케치를 하거나 비뷸 때는 사진촬영을 해야만 했습니다.자연을 작품 소재로서의 대상으로 보았던 시기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자연에 대한 감정은 너무 복잡하고 거대하게 느껴져서 어려움을 느낍니다.
산수화를 그릴 때에도 그러한 고민 때문에 방황을 많이 했었습니다.

봉산문화회관) 이번 작업을 계획할 때, 인조 잔디 외에 다른 소재들도 생각해 본 것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예수현)

권혁규) 처음에는 소재와 작품 의도 사이에서 혼돈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계획단계에서부터 야외 전시라는 특성을 고려한 소재들부터 모색하다 보니 의도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많았고, 어느 지점에서 타협이 가능한지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여러 다른 소재들을 두고 저울질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소개한다면 '흙' 입니다.

첫 단계부터 봉산문화회관 야외 바닥의 빨간 블록들을 덮어야 뭔가 시작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원을 구성하는 가장 원초적인 단계가 바닥(땅)이며 그것은 곧 흙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흙은 광범위하게 산재해 있고, 구분 지어 사고하지 않는 것들 중 하나입니다. 미세한 입자 차이나 색감 등은 그것을 인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유추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적 지역구분이 아닌 GPS와 일정한 규칙을 정해 놓고,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흙들을 모아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아가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오랜 시간 그 지역의 데이터를 가장 잘 담고 있는 것이 흙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곳에 나열하게 된다면, 최근 몇 년간 이슈였던 데이터 시각화를 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봉산문화회관) 작업 구상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고, 이번 전시 준비 중 중요시 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이기선)

권혁규) 구상을 하는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생각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경계가 느슨해지면 저도 모르게 장식적인 요소나 조형성 등 외적인 것에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에 신경을 쓰게 되면 의도가 퇴색되거나 참조를 많이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은 조금 허술해도 작품 제작 과정을 겪으면서 공부가 많이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전시 준비 중 가장 중요했던 건, 선택과 집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계획안도 많았고, 설치물도 다양했기 때문에 소재의 선택이 이루어지면 의도에 집중함으로써 불필요한 요소를 제외시키는 부분이 중요했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제작과정 중 봉산문화회관 측과의 대화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봉산문화회관) 작품을 만들고 전시하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나 에피소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김동앵)

권혁규) 일단 작품이 관객에게 관심을 받기 위해서는 뜬금없는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장소적으로 말한다면, 실내에만 있던 것들을 실외로, 실외에만 있는 것들이 실내로 들어왔을 때처럼 평소 익숙했던 것들이 공간을 달리 했을 때 느끼는 기분 같은 것이지요. 전시 설치를 위한 첫날 인조잔디를 깔았을 때부터 저에게는 하나의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행사를 위한 도구처럼, 지나다니던 시민들은 행사가 있나고 불어왔어요! 인조잔디는 그만큼 익숙한 야외 설치물이었던 것입니다.

설치 마지막 시점에 식물 영양제를 추가하기로 결정하고 실행을 했는데, 그제서야 의도가 직접적으로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지나가던 시민들은 진짜 잔디인가를 확인하려고 직접 만져보기도 했습니다. 너무 날것 상태로 의도가 표출된 것 같아 걱정했지만 그런 광경을 보고 기분이 좋아지는 건 왜일까요?

봉산문화회관) 관객들이 이번 전시 작품을 보며 어떤 경험을 하고 무엇을 느끼길 원하시나요?

권혁규) 멀리 있는 자연에 대한 이미지가 아니라 가까이 있는 자연이 어떠한 모습인지 느껴 보고 나아가 그것을 흉내 낸 모조품들조차 무의식 속에 소비되는 과정을 경험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부정적인 측면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봉산문화회관) 이번 전시 작업의 핵심을 짧게 요약해 주신다면? (신혜영)

권혁규) 생활 곳곳에 자연의 대체품들이 생겨나고 그것을 자연이라 믿고 영위하는 우리의 모습을 다감각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영위하는 또 다른 방식이며, 어떻게 소비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가져봅니다.

봉산문화회관) 이 전시 이후에 계획하고 있는 작업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신재희)

권혁규) 2017년도 3월부터 여러 차례 전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번 새로운 작업을 시도하고 싶지만 시간과 환경조건이 늘 부족하게 느껴지는 요즈음입니다. 이번 전시를 계획하면서 공부도 되었고 생각했던 것들이 많은데, 야외공간의 특수성으로 인해 실행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음 전시에서 실험하려고 합니다.
2016년 협력정원에서 선보인 '가상소리프로젝트-물고기'의 연장선에서 나무의 소리를 만들어 보려고 진행 중입니다. 이 작업은 나무의 호흡, 수분, 전기신호 등 센서에 반응하는 부분을 오실로스코프로 측정하고 이를 가상의 소리로 만들어 살아있음을 인지하고 증명하고자 하는 작업입니다. 가상소리프로젝트의 마지막 파트인 '가상소리프로젝트-타임사운드'는 시간을 이미지로 보여주는 모래시계를 이용해 가상의 시간소리를 들어 보고자 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했던 '가상공간-흙'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업이 복잡하다 보니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품구현에 중요한 요소인 컴퓨터 프로그램 제작은 안정적인 작동과의 타협점에서 포기를 많이 하는 편이지만, 실패하더라도 실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철작가 인터뷰

봉산문화회관) 이번 전시는 예술가의 실험정신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작업의 실험적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형철) 야외전시 참여가 처음이고, 태양을 이용해본 아이디어가 저에겐 가장 크고 중요한 실험적 요소였다고 생각합니다.

봉산문화회관) 이번 전시의 주제어는 '정원'입니다. 정원에 대한 김형철 작가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김형철) 사람들이 사는 세상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3명의 작가가 모여 있는 이 정원은 세상이라는 장소와 크기만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이 정원을 꾸미는 것이 3명의 작가들 이라는 특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물들이 사는 정원도 또한 사람들이 사는 세상과 똑같이 계절에 따라 변화하고 반복되고 순환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봉산문화회관) 이번 설치 작업을 시도하게 된 동기나 계기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김형철) 저는 10대~20대 때부터 하늘을 보는 것과 구름, 석양을 사진 찍는 것에 몰두했었습니다. 30대가 된 지금도 여전히 좋아하는 것에 몰두하지만, 단순히 사진으로 찍는 것이 아닌 거울 설치를 통해 그늘로 석양시간의 에너지를 옮겨보는 작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야외 전시라는 특성상 최대한 자연(하늘)의 에너지를 빌려 전시를 해보고 싶었던 것이 가장 큰 동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봉산문화회관) 작품을 볼 수 있는 시간도 계획한 부분이었나요? 24시간 중 해질 무렵의 짧은 시간만을 위한 작품을 설치하게 된 결정적 계기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기선, 서정주)

김형철) 날씨 좋은 날에 제가 좋아하는 해질녘의 색깔은 매번 다르지만 또 매일 해가 뜨고 지듯 같다는 것도 느끼게 해줍니다.

해질녘의 짧은 시간은 해가 떠 있는 시간 중 가장 햇빛이 아름다운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그 시간은 저에게 깨달음을 주는 순간이 되고, 어두운 밤이 오기 전 마지막 빛이 남아있는 시간, 아쉬움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 삶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해가 중천에 있을 때 느끼기 어려운 변화를 해질녘엔 보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짧고 강렬한 태양빛의 시간을 어두운 그늘로 옮겨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봉산문화회관) 작업을 구현하기 위한 설치물이, 일부러 찾아보지 않으면 눈치 채지 못할 만큼 잘 보이지 않는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데, 이런 위치에 설치하신 것은 어떤 의도였는지 궁금합니다. (신은지)

김형철) 계절과 해의 동선을 계산 해 보았을 때 가장 적절한 위치였습니다. 그리고 설치물은 관람을 해야 하는 작업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태양빛을 반사시켜주는 도구일 뿐 저의 작업은 바닥에서 조금씩 움직이는 빛으로 나타납니다.

봉산문화회관) 김형철 작가의 작품이 다른 두 작가의 작품에 빛을 보내줌으로써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 어떤 작용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지윤)

김형철) 기본적으로 제 작업의 의도는 관객이 그늘에서 해질녘의 햇빛을 옥상 설치물을 통해 사람이 얼굴로 받아보고 스스로 어떤 감정이든 느껴보는 것이 가장 큰 의도입니다. 권혁규 작가의 작업에 조명이 된다거나 변화를 크게 준다거나 그런 관계보다는 자연스러운 관계처럼 놓여있고 싶었습니다.

봉산문화회관) 협력정원을 구성할 때, 다른 두 작가에게 영향을 주거나 받은 것은 무엇인가요? (이기선)

김형철) 두 작가 모두 식물로 작업을 하였는데 녹색 식물이나 그 밖의 생물이 빛 에너지를 이용해 이산화탄소와 물로부터 유기물을 합성하는 작용으로 생명이 이루어집니다. 태양빛은 사람에게도 그들에게도 꼭 필요한 요소가 아닐까 라는 생각으로 영향을 주고 싶었습니다.

봉산문화회관) 모든 것은 자연의 힘에 영향을 받는다는 김형철 작가의 생각처럼 이번 작품 또한 자연의 상태에 따라 감상할 수 있는 시간과 날씨가 제한적입니다.

김형철 작가는 둥근 거울을 여러 개 사용하여 태양 빛을 반사시켜 그늘 속에서 빛의 느린 움직임을 관찰하고자 했는데, 이러한 설계도 결국 자연의 상태에 따라 그 힘을 얻을 수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작품의 완성도 작가가 아니라 자연이 결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이번 전시 작품의 완성 측면에서 만족하시나요? (예수현)

김형철) 당연히 자연의 제약을 받았습니다. 전시 전 긴 장마기간 탓에 테스트를 수월히 해보지 못한 부분과 스케일에 대한 아쉬움으로 한계가 있었지만 머릿속으로 상상하던 일을 이번 전시를 통해 구현하게 되었고, 의도를 전달하는 이야기는 될 수 있게 결과물이 나온 것 같습니다.

봉산문화회관) 작품 구상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고, 이번 전시 준비 중 중요시 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이기선)

김형철) 저의 모든 작업은 변화, 순환, 반복 같은 자연스러움이 있는 것을 추구합니다. 이번 전시에서 매일 해가 뜨고 지고 날씨로 인해 관람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생기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좋은 날씨 나쁜 날씨, 좋은 일 나쁜 일 모두 사람 뜻대로 되지 않는 자연스러움.

봉산문화회관) 작품을 만들고 전시하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나 에피소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김동앵)

김형철) 전시 오픈 며칠 전까지 날씨가 흐리고 해를 볼 수 없는 날이 연속되어서 테스트를 다양한 방법으로 못해본 점이 가장 힘들었던 부분입니다. 맑지 않았던 날씨 탓에 조금 더 완성도 높게 전시 마무리를 할 수 없었다는 점도 아직 마음으로 힘이 듭니다. 그리고 대구의 태양빛은 정말 뜨겁습니다.

봉산문화회관) 관객들이 이번 전시 작품을 보며 어떤 경험을 하고 무엇을 느끼길 원하시나요?

김형철) 많이 더운 대구 날씨이지만 조금 선선해진 날 맑은 오후 해질녘의 태양빛을 얼굴로 받으며 눈을 감고 숨을 들이 마셔보길 바라고, 그때 느껴지는 사소한 어떤 감정이든 조금 더 깊게 느껴보길 권합니다.

봉산문화회관) 이번 전시 작업의 핵심을 짧게 요약해 주신다면? (신혜영)

김형철) 태양의 관찰과 재관찰

봉산문화회관) 이 전시 이후에 계획하고 있는 작업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신재희)

김형철) 게임 핀볼 같은 규칙, 불규칙적인 판 위에서 중력에 의해 이리저리 부딪히며 떨어지고 있는 공.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조소과를 졸업해 경험이 없었던 페인팅 작업도 처음으로 도전해 볼 계획입니다.

서상희작가 인터뷰

봉산문화회관) 이번 전시는 예술가의 실험정신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작업의 실험적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상희) 이번 전시 작업 'OPEN_가상정원'은 기존의 영상 설치 작업인 가상정원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설치한 점, '야외'라는 공간이 가지는 특별성, 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상호작용이 아닌(예를 들어 빛을 비추면 식물에서 인위적인 소리가 난다.) 아날로그적이고 조금은 원시적인 상호작용을 설정한 점이 실험적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봉산문화회관) 이번 전시의 주제어는 '정원'입니다. 정원에 대한 서상희 작가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서상희) 요즘, 사람들이 '식물'에 유독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더불어 정원, 공원과 같은 장소들이 이전보다 사람들에게 각광받고 있으며 식물로 인테리어 된 공간들 또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일부러 찾아서 갈만큼)

어쩌면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잠시 내려놓고 아무 생각 없이 쉴 만한 곳을 찾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디지털이 발전할수록 인간은 그 반대로 아날로그와 같은 향수를 찾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식물이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 같고, 정원이 주는 편안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봉산문화회관) 이번 설치 작업을 시도하게 된 동기나 계기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서상희) 작년, 협력정원 전시의 '야외버전'이라는 부분이 흥미로웠고, 협력정원 전시가 가지는 의미들이 올해도 이어져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큰 동기였고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봉산문화회관) 작품과 관객들의 행위로 만들어지는 '협력정원'은 '협력정원'이라는 제목을 실현하는 것 외에 관객들이 어떤 체험을 하고 무엇을 느끼길 원하시나요? 사각뿔을 덮거나 들어내고 물을 주는 행위로 소통이란 의미로의 '협력정원'이라는 점은 이해가 가지만 관객들이 현대미술을 즐기고 경험해 보는 것 외에 어떤 결과를 기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신은지)

서상희) 관객들이 어떠한 것을 느끼길 원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설정하고 만들어 놓은 'OPEN_가상정원' 안에서 우리가 흔히 보통으로 생각하는 정원의 모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과 재미있고 창의적인 생각들을 하게 되고 느끼게 되는 작품이기를 원합니다. 관객은 각자 다양한 삶을 살아가고 생각도 다양하기 때문에 같은 작품을 봐도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관객이 느끼는 대로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관객들이 현대미술을 통해서 생각의 전환 또는 창의적인 생각과 아이디어를 얻는데 도움이 되길 원하고 자기만의 각자의 방법으로 해석해보고 작품과 소통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봉산문화회관) '협력정원'이라는 말처럼 다른 작가들의 작업과 함께 만들어간 작품인데, 작가의 작품이 다른 작가들의 작품과 어떤 협력적 관계를 맺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예수현)

서상희) '2016 협력정원'에서는 다른 작가들의 작업에 서로 개입이 되는 형식이었습니다. 다른 작가의 작품에 나의 작업이 가지는 어떠한 부분이 개입이 되어 하나의 작품이 된다는 것이 재미있었습니다. 미디어작업을 하는 3명의 작가들이 각자가 표현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나 개입되는 부분에서는 다른 작가의 작품과 나의 작업에서 공통된 키워드를 찾거나 또는 상대방 작가의 작업을 우선적으로 생각해보고 내가 그 작업 속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콜라보레이션처럼 공동 작업은 아니지만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약간의 개입 또는 협력적 관계가 각자의 작업에 좋은 영향과 자신이 보지 못하는 새로운 시각도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야외광장에 설치된 작품들도 오후 5시~6시가 되면 3명의 작가의 작품이 권혁규 작가의 잔디 위에 하나로 모여집니다. 이렇듯 내용적, 시각적으로 모두 서로에게 협력적 관계가 맺어진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봉산문화회관) 이번 작업은 관객들이 어떤 식으로 개입할지 예측이 불가능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작업인데 전시가 끝날 무렵의 작품은 어떤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예수현)

서상희) 관객들의 개입으로 인해 식물들의 잎들이 무성하게 자랐을 것 같고, 사각뿔로 결합하거나 벗어나게 해주는 행위들을 통해 제가 설정하고 계획했던 구성이 조금씩 변화되고, 작가의 손이 아닌 관객들에 의해 가꾸어진 말 그대로 'OPEN된(열린) 가상정원'이 되어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봉산문화회관) 인공물의 형상을 사각뿔로 정한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예수현)

서상희) 기존의 영상설치인 '가상정원'은 디지털이 발전할수록 반대로 우리는 아날로그에 대한 감성을 본능적으로 그리워하고 쫓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오브제로 식물(아날로그 상징)을 선택하였고, 그와 반대되는 디지털의 대표적인 요소인 컴퓨터를 활용한 인공적 빛과 영상을 결합한 것입니다.

디지털과 아날로그, 두 상반되는 언어들 속에서 애매한 경계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회화적 공간을 연출하는 것이 '가상정원'의 목적입니다. 이를 야외로 가져오는 과정에서 디지털 또는 가상을 표현하고 상징되는 '어떤' 것은 무엇일까요? 육면체보다 사각뿔을 만드는 과정이 더 까다롭습니다. 수학적인 공식도 복잡하고 각도를 잡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흔히 피라미드라 불리는 사각뿔이 저에게는 수학적이고 디지털적 느낌을 주는 '어떤' 것이 되었습니다. 디지털하고 인공적인 느낌을 더욱 가미하기 위해 투명한 소재를 사용하였고, 형태적인 면에서 뾰족하고 차가운 느낌이 자연성과 상반된 이미지를 보여주는 객체입니다.

봉산문화회관) 작년의 '협력정원' 전시에서는 '영상과 사운드'라는 무형적 매체로 디지털을 표현하셨다면, 이번에는 사각뿔이라는 조각의 형태로 디지털을 형상화했습니다. 전시에서 작가가 만든 사각뿔들의 모습은 견고하고 딱딱하지만 한편으로는 사각뿔 표면의 셀로판지들이 빛을 반사시켜 다양한 색들을 뿜어냅니다. 자연과는 다른 아름다움을 보여주는데 작가에게 디지털이란 어떤 이미지인지 궁금합니다. (예수현)

서상희) 사각뿔 표면의 셀로판지는 다이크로닉(dichroic)이라는 특수 필름으로 빛의 각도에 따라 다양한 색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지털하고 인공적인 성향을 부각시키기 위한 투명한 사각뿔 그리고 바닥에서 가상정원의 범위를 설정하고 있는 투명한 비닐이 빛을 투과하고 반사하며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더 가미해주는 다이크로닉 필름 자체는 인공이지만 자연의 빛, 조명의 각도에 따라 우연적으로 (의도치 않게) 다채로운 빛을 뿜어냅니다. 제가 생각하는 디지털의 이미지는 직선적이고 여러 빛을 반사하며, 투명하고 반짝반짝합니다. 그래서 설정해 놓은 'OPEN_가상정원'에서 보여지듯 저에게 디지털은 투명한 것들 사이에서 빛이 반사되고 주위의 이미지들이 함께 비춰지면서 다양한 색들을 반짝반짝 뿜어내는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봉산문화회관) 전작인 '가상정원'과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기선)

서상희) '가상정원'과 'OPEN_가상정원'의 비슷한 점은 디지털 혹은 인공과 아날로그, 두 상반되는 언어들 속에서 애매한 경계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회화적 공간을 연출한 것이고, 다른 점이 있다면 영상매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과 주어진 공간이 야외라는 것이 가장 큰 다른 점이며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다르게 적용되었습니다. 기존의 작업과는 다른 직관적인 반응에 대한 상호작용이 아닌 설명적이고 개념적인 상호작용을 표현하였습니다.

봉산문화회관) 작품 구상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고, 이번 전시 준비 중 중요시 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이기선)

서상희) 작품 구상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무래도 보여지는 시각적인 부분인데 (추상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주어진 공간에 어떻게 내가 좋아하고 재미있어하는 이미지들이 잘 표현되도록 연출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보통 공간이 주어지면 설치작업에 대한 컨셉, 대략적인 큰 그림이 그려지는 편입니다. 이번 야외광장에서의 작업은 대략적인 이미지가 확실하게 떠오르지 않아서 설치하는데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야외에서 작업을 설치하는 방법, 소재 등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서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봉산문화회관) 작품을 만들고 전시하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나 에피소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김동앵)

서상희) 먼저, 야외라는 장소 자체가 어려운 공간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해왔던 설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했으며, 작품의 소재, 날씨, 안전문제 등 야외라는 이유로 고려해야 할 사항과 생각지 못한 상황들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대처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한 고민들이 어려웠습니다. 특히 전시하는 과정에서, 뜨거운 햇빛 아래의 (구멍을 뚫어놓았지만) 공기 순환이 자유롭지 못한 사각뿔에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식물이 살아가기에는 어려웠기 때문에 원래의 의도가 상황에 따라 다시 구상되기도 했습니다.

봉산문화회관) 이번 전시 작업의 핵심을 짧게 요약해 주신다면? (신혜영)

서상희) OPEN_가상정원! 말 그대로 열린_가상정원으로, 관객이 내가 설정한 정원과 상호작용하게 되면서 진정한 협력정원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봉산문화회관) 이 전시 이후에 계획하고 있는 작업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신재희)

서상희) 9월에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2017 올해의 청년 작가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도 기존의 '가상정원' 컨셉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설치된 공간에 들어갔을 때, 자유로운 인터랙션과 함께 좀 더 완성도 있는 2017 버전의 가상정원을 보여줄 계획입니다. 또한 다른 컨셉의 작업으로는 실제 물리적인 움직임이 가미된 설치작업들을 해보려고 공부하고 준비 중입니다.

■ 참여작가 인터뷰
2017 Hello! Contemporary Art I
야외설치 1977로부터

박정기작가 인터뷰

봉산문화회관) 이번 전시는 예술가의 실험정신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작업의 실험적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정기) 물로 멜랑꼴리한 건축구조를 만들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실제 작업에서 실험적인 부분이라면 전체 진행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로젝트가 '레인프로젝트'(실내설치)에서 '레인파빌리온'(야외 프로젝트) 그리고 '레인파빌리온2'(야외 프로젝트)로 많은 변형 과정을 거치면서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프로젝트는 사실 설치장소 변경과 예산 책정을 잘못하여 생긴 예산 부족 등으로 제반 환경이 변하면서 제작상황이 크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빛과 소리의 공명을 빈 공간에 채우는 실내 설치작업인 '레인프로젝트'는 야외 프로젝트 작업인 '레인파빌리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붕이라는 소재를 그대로 가지고 왔지만, 물로 건축적인 구조를 만들려는 시도로 컨셉 자체가 변화하였습니다. 이후 작업은 개방적인 데크 공간과 물을 재료로 건축(레인파빌리온)한다는 요소가 결합된 '레인 파빌리온2'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봉산문화회관) 봉산문화회관) 이번 전시의 주제어는 '정원' 입니다. 정원에 대한 박정기 작가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박정기)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로맨틱한 순간을 표현할 때 장자에서는 '자신의 정원을 거닌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정원은 자기 자신을 대면하는 장소이면서, 저마다 다른 내면의 풍경을 상징하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졸업 전시에서 처음으로 설치작업을 시도했었는데, 당시 동양화 전공자로서 설치미술은 생소한 분야였기 때문에 관련 지식이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설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현대미술 이전에 우리는 공간과 사물에 대해 어떻게 인식해 왔는가?' 라는 의문입니다.

정원은 공간에 대한 인식과 사물에 대한 태도가 잘 나타나 있는 장소입니다. 특히 한,중,일 전통 정원이 가지고 있는 공간 배치의 확연한 차이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학시절 뒤셀도르프(독일)에 있는 K2O(뮤지움)에서 본 전시작업 중에서 바로크 시대양식 건축물과 바로크시대의 의상과 춤을 결합한 설치 퍼포먼스를 보았는데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이후 기회가 되면 나도 정원의 건축양식과 소리를 결합하여 정신적인 면이 잘 드러나는 공간을 연출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봉산문화회관) 이번 설치 작업을 시도하게 된 동기나 계기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박정기) 이번 설치는 원래 야외 프로젝트 프로그램으로 봉산문화회관에서 제안하여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봉산문화회관) 전시 중인 영상 속 라디오에 나오는 말은 따로 녹음한 것인지, 그 지역 라디오를 그냥 틀어놓은 것인지, 만약 녹음했다면 무슨 내용인가요? 그리고 정원 작업에서 들리는 소의 되새김질 소리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소 되새김질 소리로 어떤 효과를 기대하시나요? (엄지나, 서정주)

박정기) 라디오 소리는 당시 실시간으로 전파를 타고 있는 독일 방송입니다.
그리고 소 되새김질 소리는 여러 설치, 프로젝트 작업에서 이미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이전 작업에서는 기존 미술언어로 이해 될 수 없는 '어떤 것'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많은 경우 미술작품 이해는 기존 미술에 대한 이해와 학습으로부터 시작된 선입견 같은 것이 있다고 봅니다. 소 되새김질 소리는 이런 비교 분석적인 부분을 해체하는 일종의 장치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스터리하게 보이지만, 관객과 작업을 현재(지금)에서 바로 직면하게 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봉산문화회관) 이번 전시 작업 "정원2"에서 전시 공간을 임의로 나누어서 새로운 공간을 만드셨는데 평소에도 이런 식(마치 세트장처럼 공간을 분리시켜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내는 것)의 방식으로 전시를 많이 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이번 전시에서 새로 시도해 보신 건가요? 이번 전시구조가 작가님의 의도대로 잘 나타난 것 같은지도 궁금합니다. (길혜민)

박정기) 전시는 의도대로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번 전시는 전시 계획이 변경 되는 바람에 짧은 준비 기간에 주제에 맞는 새로운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운 작업 이었습니다.

'정원2'에서는 '정원1' 이 가지고 있는 자기 조우의 공간인 정원을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자기 부정적이고 분열적인 내면공간으로 묘사하고 싶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고 잘 표현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공간을 나누어서 진행한 설치 작업은 '어떻게 죽은 보이스에게 그림을 설명할까?_2010(독일)' 라는 작업에서 시도한 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눠진 공간 뒷부분까지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원의 내면적인 부분을 드러내려 하면서 나무 골조와 구조를 그대로 노출하는 방법으로 정원 앞쪽과 차이를 그대로 드러내 보이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봉산문화회관) 뚫려 있는 문이 '원' 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동양의 천원지방 사상인지…) 동양의 사군자나 정원에 구성되는 다양한 내용이 있을 텐데 특별히 대나무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장보성)

박정기) 둥근 문은 전통 정원 문으로 자주 사용되는 로맨틱한 구조입니다.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장소로서의 정원에 어울리는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둥근 문을 동양 회화에서 자주 쓰는 화면 포맷으로 보았습니다. 문을 통해 보이는 풍경은 한 장의 산수화나 절지화 같은 이미지가 되리라고 상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정원 건축을 재현해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선택되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봉산문화회관) 자기조우를 상징하는 공간인 "정원1"에서 이상적으로 끝낼 수 있었을 텐데, 굳이 "정원2"에서 현실의 상황에 가로막혀 좌절된 자기실현의 공간을 만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길혜민)

박정기 예! 맞는 말씀 입니다. '정원1'은 '정원2'의 의미를 이미 다소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원2' 는 우연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썩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만 앞의 답변에서도 언급했듯이 전시가 갑작스럽게 변경되면서 봉산문화회관에서 생각하고 있는 주제와 근접한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문화회관 측에서 '정원1' 작업을 전시하는 문제를 물어온 상황에서 예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원1'을 새롭게 각색한 작업을 제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진행하고 있는 '난지도 프로젝트'에서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자기분열과 자기부정의 모습을 정신 병리학적 지질학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작업과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봉산문화회관) 나무나 잔디는 직접 기르신 건지 작품을 위해 구매하신 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시가 끝나면 작품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신현주, 이기선)

박정기) 대나무는 구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시 이후에는 지인이나 필요한 분들께 드리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키울 수 있는 대나무는 한 두 그루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봉산문화회관) 작품 구상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고, 이번 전시 준비 중 중요시 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이기선)

박정기) 작업 컨셉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적합한 표현법과 재료, 그리고 작업이 풍부하게 읽힐 수 있도록 의미들을 어떻게 연결해 나갈 것인가? 에 대한 것입니다.

봉산문화회관) 작품을 만들고 전시하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나 에피소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김동앵)

박정기) 힘들었던 점은 '레인 프로젝트' 에서 물을 이용하여 건축구조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물을 펌프로 끌어올려 고르게 흘러내리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정교한 분수 설치 기술이 요구 되는 점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작업 초기, 여러 엔지니어를 만났는데 각기 다른 문제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바람에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책정에 문제가 생겨서 프로젝트 진행이 무산되었고, 이후 '정원1'을 '정원2로' 전환하는 작업을 시작하기로 했는데 작업 진행이 잘 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봉산문화회관) 관객들이 이번 전시 작품을 보며 어떤 경험을 하고 무엇을 느끼길 원하시나요?

박정기) 관객은 자유로운 자기 상상과 비평적 시각으로 제가 만든 것을 새롭게 느끼고 해석해 볼 것입니다. 무엇을 느끼고 어떤 경험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각자의 몫인 것 같습니다.

봉산문화회관) 이번 전시 작업의 핵심을 짧게 요약해 주신다면? (신혜영)

박정기) 이번 전시는 아쉽게도 처음 아이디어가 그대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시에서는 이런 실패의 기록이 그대로 전시되어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작가 의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작업은 어떻게 변형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봉산문화회관) 이 전시 이후에 계획하고 있는 작업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신재희)

박정기) 작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진행해 온 작업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작업 진행이 설치, 프로젝트, 퍼포먼스 등 장르를 오가며 다발적으로 진행해 왔고, 최근에 프로젝트를 주로 해서 작업을 진행해 왔었습니다.

특히 대형프로젝트 작업은 실현시키는데 많은 재원과 다양한 조건이 충족 되어야 하므로 실현 가능성이 낮아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웠으며, 작업 흐름을 놓치기 쉬운 단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퍼포먼스를 기반으로 한 설치작업을 진행해 나가면서 새로운 작업방향을 설정하는 계기를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계획하고 있는 작업은 이 지면을 통해 설명하는 것 보다 실제 전시에서 만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재범작가 인터뷰

봉산문화회관) 이번 전시는 예술가의 실험정신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작업의 실험적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재범) 도시의 구조물인 에스컬레이터를 전시장 안에 설치한다는 게 가장 큰 실험이었습니다. 그것도 나무로 된 에스컬레이터!

봉산문화회관) 이번 전시의 주제어는 '정원'입니다. 정원에 대한 정재범 작가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정재범) '정원'이란 이미지는 넓은 집 마당에 나무나 꽃으로 둘러싸인 녹색의 공간을 떠올리게 되는데, 막상 회색 빛 도시에서 생활하는 우리들은 집 안에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 키우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말에 산이나 바다로 여행을 떠나지만, 일상에 지쳐있으면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으로 떠날 여유가 없는 현대 도시인들을 위해 도시의 익숙한 구조물을 인공의 자연물로 해석해보고 싶었습니다.

봉산문화회관) 이번 설치 작업을 시도하게 된 동기나 계기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정재범)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유학생활 중에 여행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사람 없이 혼자서 움직이는 에스컬레이터를 멍하니 바라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직장인으로 바쁘게 살 때는 보이지 않던 게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 새롭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 때 핸드폰으로 촬영만 해두었다가 이번에 그 모습을 실제로 재현하게 되었습니다.

봉산문화회관) 전시 작업 제목이 '무지개폭포'인데, 작품에서는 정작 무지개라는 것을 연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지개폭포'란 이름은 어떻게 해서 붙이게 되셨나요? (예수현)

정재범) '폭포' 앞에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단어를 붙이고 싶었습니다. '무지개'를 떠올리면 기분 좋아지잖아요. 과학시간에 배운 대로 무지개가 생기는 원리는 누구나 알지만, 실제로 본 사람은 많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무지개는 상상과 현실 사이에 존재하는 특별한 존재 같습니다. 그리고 무지개의 색상은 다양성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사용하기도 하구요. 에스컬레이터를 보고 제가 폭포를 상상했듯이 관객들도 제 작품을 보고 기분 좋은 무언가를 떠올렸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목이 상상 속에 존재하는 '무지개 폭포'가 되었습니다.

봉산문화회관) 보통, 도심 속 에스컬레이터는 늘 사람이 붐비는데 언제 에스컬레이터의 움직임을 관찰하셨나요?

그리고 전시장의 두 에스컬레이터 사이의 벽면에는 떨어지는 폭포와 움직이는 에스컬레이터 영상이 재생되며 폭포의 소리도 들립니다. 영상들은 직접 촬영하신 건지, 어디의 모습을 찍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신재희, 예수현)

정재범) 저도 직장 생활을 할 때, 사람이 붐비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출퇴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땐 저도 무엇을 그냥 바라 볼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멈추면 비로소 보인다고 하는 것처럼 삶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죠. 이후 유학생활 중에 한 가로이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텅 빈 에스컬레이터가 새롭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스컬레이터 영상은 핸드폰으로 직접 촬영했고, 폭포 영상은 인터넷에서 찾았습니다. 이번에 작업하면서 폭포 영상을 찾다 보니 인터넷에 다양한 폭포 영상이 많았습니다. 제가 사용한 영상은 원래 8시간짜리 영상을 짧게 편집한 건데 화면 속 가짜 폭포를 바라보며 위안을 찾는 현대인의 안타까운 모습도 잠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봉산문화회관) 반복해서 움직이는 에스컬레이터를 가만히 쳐다보며 명상에 잠길 수 있었다고 하셨는데, 다른 움직이는 것을 보며 이와 비슷한 기분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어떤 것을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예수현)

정재범) 예루살렘 시장에서 만난 거지(구걸하는 사람)의 구걸하는 동작을 관찰한 적이 있었는데 하루 종일 단순한 동작만 반복하며 사는 사람의 삶에 대해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도시에서 시간에 쫓기며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되었죠.
누군가는 구걸하는 사람들을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만 저는 그가 나름대로 수행을 하는 중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심플라이프'라는 제목으로 움직이는 오브제들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봉산문화회관) 에스컬레이터 속 기계 장치가 눈에 보이게 놔두신 것은 기계가 움직이는 모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건가요? (강지윤)

정재범) 제가 만든 것들을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복잡한 구조는 아니지만, 관객들에게 최대한 친절하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곳곳에 남겨진 낙서나 실수의 흔적들은 저에겐 작업의 기록이자 관객에겐 제작과정을 유추해볼 수 있는 단서이기도 하구요.
되도록이면 작품도 쉽고 이야기도 쉽게 하는 친절한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참고로 대구 반월당역 만남의 광장에 속이 보이는 투명한 에스컬레이터가 있더군요.)

봉산문화회관) 에스컬레이터를 만드실 때 재료를 나무로 사용하신 것은 위로나 치유의 의미로 선택하신 건가요? (강지윤)

정재범) 앞서 얘기했듯이,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측면의 의미가 더 큽니다. 원래의 에스컬레이터는 무겁고 거대한 금속성의 기계를 떠올리게 되잖아요. 에스컬레이터가 나무로 재현됐을 때의 낯설음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나무 구조와 금속 부품들 사이의 묘한 긴장감도 좋구요. 저는 가구디자이너로 활동할 때, 나무보다 금속을 주로 사용했는데 가구의 사례를 볼 때 나무라는 소재가 꼭 따뜻하다거나 누구에게나 위로나 치유의 의미로 다가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봉산문화회관) 작품 구상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고, 이번 전시 준비 중 중요시 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이기선)

정재범) 작품마다 다른데, 이번 작품에서는 제가 느꼈던 경험, 위로, 휴식, 치유와 같은 정서를 전달하기 위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사이에 핸드폰으로 영상을 보여주는 아이디어는 고민 끝에 마지막에 결정했는데, 처음에는 거대한 프로젝션 이미지를 사용하려고 계획했다가 나중에 오히려 작은 화면이 관객을 작품에 더 가깝게 다가서게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봉산문화회관) 작품을 만들고 전시하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나 에피소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김동앵)

정재범) 제작부터 설치까지 혼자 했다고 하면, 다들 이 부분에 놀라십니다. 평소에도 혼자 작업하는 편이긴 한데, 천천히 꾸준하게 작업하는 제 작업 스타일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난한 과정을 즐기는 저의 작업 태도는 노동 또는 수행하는 모습에도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설치하는 중간에 어떤 분이 제가 혼자서 작업하는 모습을 보시고 작업하는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그때부터 사진을 열심히 찍어서 결국 전시장에 영상으로 틀어놓게 되었습니다.

봉산문화회관) 관객들이 이번 전시 작품을 보며 어떤 경험을 하고 무엇을 느끼길 원하시나요?

정재범) 학생이나 직장인, 바쁘게 사느라 자연으로 휴가갈 여유도 없는 사람들이 전시장을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리적, 물리적 여유가 없는 분들에게 잠시나마 휴식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탈 수 없는 무의미하게
움직이는 에스컬레이터를 그저 멍하니 바라보기만 해도 좋을 거 같습니다. 우리에겐 점점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들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여담으로 에스컬레이터가 3~4분 정도 멈추는 시간이 있는데, 어떤 관객은 작동하는 것을 못보고 그냥 돌아가는 관객도 있더군요. 어쩌면 우리는 5분도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사라진 것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봉산문화회관) 이번 전시 작업의 핵심을 짧게 요약해 주신다면? (신혜영)

정재범) 낯선 휴식.

봉산문화회관) 이 전시 이후에 계획하고 있는 작업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신재희)

정재범) 휴식과 멈춤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니 명상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시중에 진행되는 워크숍도 '숨쉬듯 가볍게'라는 제목의 호흡명상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직장인이나 학생 등 일상에 지친 일반인 분들을 초대해 에스컬레이터 폭포 앞에서 간단한 명상과 요가를 할 계획입니다. 이후에는 저도 당분간 휴식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권 혁 규 權赫圭 Gwon, Hyeok-gyu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한국화전공 졸업
경북대학교 일반대학원 디지털미디어아트학과 석사과정 수료

개인전

2016 The Data escape project part1-DATA sheet, 중앙갤러리202, 대구
Motion:Sound Room, 비영리전시공간 싹, 대구
2015 Virtual sound project, 봉산문화회관, 대구

단체전

2017 뮤지비션-노래하는 사물, 대구예술발전소, 대구
대구예술생태보감, 대구예술발전소, 대구
2016 도시의 산책자 공동도시.기억.생태, 범어아트스트리트, 대구
Colorful convergence, 경북대학교 미술관, 대구
Hello! contemporary artⅡ 권혁규 김형철 서상희, 봉산문화회관, 대구
미디어풍경 interactive media art & kinetic art, GS칼텍스 예울나루, 여수
Co-Work, 웃는얼굴아트센터, 대구
2015 Interkinetic:머무르지 않는, 북성로 (구)소금창고, 대구
강정 대구현대미술제-강정, 가까이 그리고 멀리서, 강정 디아크, 대구
인 대구 미디어 파사드 2015,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2014 9 to 9, 스페이스9, 대구
Colorful convergence-Collaboration : now, 경북대학교 미술관, 대구
2013 Global E-fun 게임아트전, 대구예술발전소, 대구
디지털미디어아트전, 경북대학교 박물관, 대구

참여프로젝트

2016 디지털 지신밟기 미디어 포퍼먼스공연〈아람쌈쌈〉, 웃는얼굴아트센터, 대구
2015 공연〈불순한 공연〉 미디어퍼포먼스, 무용수 안경미와 콜라보레이션, 가창스튜디오
공연〈삼색사음〉, 테크니컬 디렉터로 참여, 봉산문화회관, 대구

레지던시

2010 대산미술관, 창원

수상/선정

2017 대구문화예술회관 올해의 청년작가 선정
2016 대구문화재단 청년예술가육성지원사업 선정

--savatage--@hanmail.net

김 형 철 金炯徹 Kim, Hyung-chul

경북대학교 미술학과 조소전공 졸업
경북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술학과 조소전공 재학

개인전

2013 The illusion grove, 아트스페이스 숲, 가창
2011 Media holic, 진화랑, 서울
Movement, 게이트, 대전

단체전

2017 아름다운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오프닝, 무용, 국악, 패션쇼)
영상, 서울, 메이필드 호텔
2016 서울 패션위크, 이상봉 x Kwave 오프닝영상, Kwave 사옥, 서울
평창올림픽 홍보 미디어파사드 기술감독, KT광화문 사옥, 서울
in Daegu, 미디어파사드 기술감독 및 참여작가,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Hello! contemporary artⅡ 권혁규 김형철 서상희, 봉산문화회관, 대구
2015 in Daegu, 미디어파사드 기술감독 및 참여작가,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2014 서울 패션위크, 이상봉 패션쇼 오프닝영상&음악감독,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서울
2013 현대백화점 미디어파사드 참여, 본점&무역점, 서울
BMW4시리즈 한국 런칭 오프닝영상, 미메시스뮤지움, 파주
한국-오스트리아 국가수교50주년행사 무대&영상&음악 감독, 국립예술사박물관, 빈, 오스트리아
한국-스위스 국가수교50주년행사 무대&영상&음악 감독, 크라운프라자, 취리히, 스위스
2012 파리 패션위크, 이상봉 패션쇼 오프닝무대&영상 제작, 그랑팔레, 파리, 프랑스
YAP, 12 메타제국, 엑스코, 대구
2010 카코포니6, 분도갤러리, 대구

chazleskim@gmail.com
vimeo.com/Chazles
instagram.com/Chazleskim

서 상 희 徐尚希 Seo, Sang-hee

경북대학교 일반대학원 디지털미디어아트학과 박사과정 수료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서양화전공 및 동대학원 졸업

개인전

2016 가상정원, 봉산문화회관, 대구
2015 범어아트스트리트 커브2410 Rhythm of Drawing_우주, 식물 그리고 집, 범어아트스트리트, 대구
2013 GLASS BOX ARTSTAR Ver.5 서상희, 봉산문화회관, 대구
2012 GrandFather's House, 봉산문화회관, 대구

단체전

2017 Art without Man, 경북대학교 미술관, 대구
2016 Re-familiarization,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술관, 서울
2016 컬러풀 컨버전스, 경북대학교 미술관, 대구
Hello! contemporary artⅡ 권혁규 김형철 서상희, 봉산문화회관, 대구
예술가의 숙제, 범어아트스트리트, 대구
청출어람, 갤러리 H, 대구
경북대학교 개교 70주년 기념전시회-70년의 전통(70년의 전망), 경북대학교 미술관, 대구
2015 텐토픽아티스트페스타-공간역전, 대구예술발전소, 대구
△+사이=', 비영리전시공간 싹, 대구
집에 식물 이쓰슈?, A-씸(무빙아트웍스 사회적협동조합 전시장), 대구
To My Family, 현대예술관 전시실, 울산
2015 GAP(Glassbox Artist Project), 봉산문화회관, 대구
Pentagon, 갤러리 선, 대구
2014 컬러풀 컨버전스 collraboration, 경북대학교 미술관, 대구
Dynamic Place(다이나믹 플레이스), 범어아트스트리트, 대구
2013 project B gallery 신진작가기획-생활의 발견, 범어아트스트리트, 대구
2010 작은공간 이소 나누기 프로젝트-공작노리터, 대안공간 이소, 대구

레지던시

2015 대구예술발전소 텐-토픽4기 입주작가 '트라이파드'

artheeris@naver.com

박 정 기 朴廷基 Park, Chung-ki

마이스터 슐러, ACADEMY OF FINE ARTS MEUNSTER,
교수 기용 바일, 독일
아카데미 브리프(석사), ACADEMY OF FINE ARTS MEUNSTER, 독일

개인전

2017 2017Hello! Contemporary Art I - 야외설치 1977로부터 Spot2, 봉산문화회관, 대구
2016 달콤함의 무게_Weight of Sweetness, KAIST 경영대학 Research & Art Gallery, 서울
2013 Theater_ Kein Theater, Project Hafenweg 22, 뮌스터, 독일
2010 How to explain pictures to dead Beuys, 쿤스트 아카데미 뮌스터, 독일
2009 Museum for Museum, 베베어카 파빌리온, 뮌스터, 독일

단체전

2017 봄, 쉼표하나, 어가의 시작, 고양아람누리 아람미술관, 고양
봄의 제전, poma 포항 시립미술관, 포항
2016 구사구용,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2015 은밀하게 황홀하게, 문화역서울284
태화강 국제설치미술제, 울산
청색증, 세마 난지 전시실, 서울,
2013 사건들, 국립현대미술관 고양창작스튜디오, 고양
INTRO, 국립현대미술관 고양창작스튜디오, 고양
2012 Here and Now, 구스타브 립케 뮤지엄, 함, 독일
KUNSTPUNKTE Duesseldorf 2012, 뒤셀도르프, 독일
2011 DA Kunst in der Region 2011, 쿤스트하우스 클로스터 그라벤호스트, 독일
At Home - on the Road, 카우나스 포토그래피 갤러리, 리투아니아
KASK - Kunstakademie Muenster, Selectie door Guillaume Bijl, 겐트, 벨기에
2010 Emscher Kunst, RUHR 2010, 레클링하우젠, 독일
Kunstpfad Ruhr, RUHR 2010, 에센, 독일
Landpartie, 쿤스트 무제움, 알렌, 독일

레지던시

2016 금천예술공장 8기, 서울문화재단, 서울
2015 난지미술 창작스튜디오 9기,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13 고양미술 창작스튜디오 9기, 국립현대미술관, 고양

chungkipark@naver.com
http://chungkipark.blog.me

정 재 범 鄭宰範 Jeong, Jae-beom

홍익대학교 금속조형디자인과 및 목조형가구학과 졸업
베자렐 아카데미 예루살렘, 산업디자인 석사졸업

개인전

2017 2017 Hello! Contemporary Art II–정재범, 봉산문화회관, 대구
2016 빼꾹빼꾹 개굴개굴, 가창창작스튜디오, 대구

단체전

2017 낯선, 도착,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어유촉촉,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Platform, 핸슨하우스, 예루살렘
2016 3UNTITLED, 아트스페이스 펄, 대구
나가리, 범어아트스트리트, 대구
2015 비치코밍 페스티벌, 재주도 좋아, 제주도
Metabolism, 비니야민 센터, 텔아비브
2014 UptoDate, 예루살렘 디자인위크, 예루살렘
2013 40인의 단편선,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광주
Korea Power, 프랑크푸르트 응용미술박물관, 프랑크푸르트
2012 도시농부의 작업실,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서울
2011 의자, 걷다,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청주
푸드 커뮤니티,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광주
2010 오래된 선물,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서울

레지던시

2017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11기 입주작가
2016 가창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2015 일주일 제주바다 레지던시, 재주도 좋아

jaebeom.jeong@gmail.com
www.jaebeomjeong.com

전 시 소 개

2017

Hello!
Contemporary Art
야외설치 1977로부터

야외설치 1977로부터-정원庭園

'Hello! Contemporary Art'는 동시대성의 참조와 이해를 기반으로 서로 다른 개별적 감성들의 시각적 축적을 선보이면서 세계 인식을 상호 연결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설계한 전시의 명칭이다. "2017 Hello! Contemporary Art – 야외설치 1977로부터"는 지난 2014년, 비디오아트의 실험성에 주목했던 "Hello! Contemporary Art – 실험정신1978로부터" 전시의 중요한 가치들을 되새기며 야외설치 미술의 실험성에 주목하는 봉산문화회관의 기획전시이다.

봉산문화회관은 2004년부터 지금까지 해마다 동시대 미술의 실험정신과 새로운 흐름을 소개하기위해 다양한 전시를 지속적으로 개최해왔고, 현재까지 그 가치에 관한 신뢰의 폭을 점차 넓혀가고 있다. 미래를 위한 가능성이 돋보이는 젊은 예술가들의 작품에서부터 미술사적 가치가 매겨진 역사적인 작품의 전시에 이르기까지 지난 시간의 성과들은 다양한 층위를 갖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동시대 미술에 대한 일반 대중의 관심과 이해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며, 그로 인해 공공분야에서 동시대 예술의 활성화를 지원해야하는 봉산문화회관의 역할에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이다. 전시의 명제 'Hello! Contemporary Art'에 스며있듯이 우리시대에 진정 해결해야할 과제는 동시대성의 공감과 대중과의 상호 소통, 즉 서로간의 공유와 호흡일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난 2014년 봉산문화회관의 개관10주년 기념 전시로 '야생서식지'를 떠올렸던 미디어아티스트 류재하와 조각가 이기철의 야외설치와 실내전시, 영상을 함께 소개했던 "Hello! Contemporary Art – 실험정신1978로부터"를 시작으로, 야외광장에 비닐 물주머니 3600개를 설치한 홍순환과 나무 조각으로 조성한 실내정원을 선보였던 조각가 김성수에 의해 진행했던 2015년 전시, 컴퓨터 부속품으로 사이버 야외정원을 설치한 리우와 실내 협력정원을 조성하는 주제로 영상, 소리, 미디어 작업을 소개했던 권혁규, 김형철, 서상희 3인의 2016년 전시 등은 동시대 예술의 공감과 소통을 위한 시각예술 실험의 흔적일 것이다. 이어서, 또 다른 '정원'을 상상하게 하는 올해 2017년 전시는 자연에 대하여 '실험정신'을 싹틔우는 인간의 터전이란 의미로서 '정원庭園'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리고 이번 전시의 부제 '야외설치 1977로부터'는 정형화된 실내전시 공간의 한계를 확장하여 자연 상태의 강변 모래벌판과 숲에서 해프닝을 시도했던 이전 세대 미술가들의 태도를 떠올리듯, 야외광장과 거리를 드나들며 대중과의 소통과 동시대성의 실마리를 '실험정신'에서 찾으려는 신체행위의 현재적 기록들을 대변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 전시는 야외 공간 'Spot1'과 실내 공간 'Spot2'의 경계를 드나들며 대중을 향한 예술 소통 인터페이스의 확장과 우리시대 예술의 다양한 가능성들을 실험하려는 장이라 할 수 있다.

올해, 이 전시를 지탱하는 권혁규 김형철 서상희의 '협력정원'과 박정기의 '정원' 설계는 세계 혹은 우리 삶의 현재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마음껏 채집採集하여 기록記錄하고 공작工作하는 놀이마당으로서 '정원'에 관한 것이다.

야외 공간 Spot1에서 권혁규의 실험 설계 : 협력정원-가상공원

'권혁규'의 설계는 자연을 가까이하려는 인간의 욕망과 이를 바라보는 시선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번 작업은 대부분의 시간을 도시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친숙한 자연의 모습이 손질되고 정돈되어진 공원 혹은 정원의 자연이라는 점에 착안한 설정이다. 작가는 자연 상태의 초록 잔디를 모방한 플라스틱 인조 잔디(1600x700cm)를 봉산문화회관 야외 광장에 펼쳐놓았다. 그리고 그 위에 식물 영양제 100여개를 꽂거나, 스프링클러로 물을 뿌리거나, 확성기를 통한 '잔디를 밟지 마세요!'라는 의미의 전자소리와 플라스틱 러버콘(rubber cone)으로 외부인을 통제하며 과잉보호를 하는 상황의 연출인데, 이 상황은 마치 진짜 잔디를 가꾸는 것이 아닌가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분명 이상하고 부자연스럽지만, 도시 생활인으로서 우리의 입장에서 인공적인 자연을 가꾸는 우리들 일상생활의 상황들을 떠올리게 한다. 또 잔디를 깔아놓은 광장의 한 쪽에는 계곡 물과 바람소리 등 자연의 소리가 들리고, 화려한 원색의 파라솔을 꽂아 펼친 흰색 테이블과 의자가 배치되어있으며, 박수를 치면 소리를 내며 움직이는 장난감 새 한마리가 앉아있어서 자연에서 충만감을 찾으려는 인간의 심리적 상황 설정을 시각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이처럼 작가는 일상생활 곳곳에 자연을 대체하는 대량생산 제품들이 생겨나고 그것을 자연이라 믿으며 영위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유머러스하게 표현하려한다. 그리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인조잔디의 중앙에는 서상희 작가의 피라미드와 식물화분이 자리를 지키며, 늦은 오후에 비치는 김형철의 'Highlight' 작업과 함께 세 미술가가 공유하는 '협력정원'의 묘미를 드러낸다.

야외 공간 Spot1에서 김형철의 실험 설계 : 협력정원-Highlight

'김형철'에게 미디어는 인간 삶에 관계하는 감정과 본능의 상태를 표현하는 매체로서 작용한다. 세상 모든 것에 적용되는 자연의 힘과 숭고함을 야외 설치작업으로 연결하려는 이번 작업은 인간이 자연 앞에서는 아주 보잘것없고 미미한 존재라는 작가의 생각과 경험적 명제들을 반영하고 있다. 변화무상한 자연 환경의 상태에 의해 인간의 감정이 변하는 모습에서 이러한 사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으며, 작가는 최대한 순수하고 자연스러운 상태로 살아가길 원한다. 미디어아티스트로서 인공조명이 아닌 자연 태양 빛에 의존하는 새로운 작업들에 대하여 생각하던 작가는 도심 속의 그늘진 장소에 태양 빛을 비추는 상상을 했고, 지름 12cm정도의 둥근 거울을 여러 개 사용하여 해 저무는 저녁 무렵 서쪽하늘의 태양 빛을 반사시켜 건물에 가려서 생긴 그늘을 밝게 비추는 상황과 그 실천 행위를 설계하였다. 김형철은 이 빛을 설명하면서 깨달음을 주는 빛이라고 했다.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사라지기 직전의 시간이 지닌 아름다움을 담아내는 그런 빛을 통하여 작가는 자연의 힘과 오묘함을 전하려고 하는 듯하다. 반사 장치를 이용하여 건물의 반대편 그늘 속으로 옮겨진 태양 빛의 움직임은 훨씬 관찰이 용이한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느리게 움직인다. 이 상황을 유심히 지켜본 작가는 세상의 모든 것은 이 태양 빛의 움직임처럼 느리게, 오랜 시간을 통해 만들어 진다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한다. 해가 뜨고 달이 지는 자연의 움직임처럼 태양의 자연성에 의존한 이번 설치 작업은 1977년 강정 백사장에서 미디어아티스트 박현기가 태양 빛 가득한 강변에 늘어선 포플러 나무에 횃가루를 뿌려 나무와 그림자를 역으로 그리는 작업을 떠올리게 하기도 한다. 그로부터 40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봉산문화회관 건물의 옥상 난간에 위치한 거울 설치 구조물이 축이 되어 태양의 경로를 따라 빛을 반사해서 1층 광장 바닥에 설치한 권혁규와 서상희의 작업 주위에 빛을 보내주는 '협력정원' 구조의 이번 설치 작업은 오래된 실험을 닮은 신선한 실험 설계라 할 수 있다.

야외 공간 Spot1에서 서상희의 실험 설계 : 협력정원-OPEN 가상정원

'서상희'는 야외광장의 남측 일부에 인공정원이라고 할 수 있는 회화적 공간을 연출한다. 이는 자연과 인공의 상태 혹은 아날로그와 디지털적인 상황이 공존하는 세계의 모습, 또 디지털 기술이 발전할수록 그리워지는 자연 또는 식물에 대한 관심과 아날로그 감성에 관한 작가의 서술이다. 이제까지, 작가의 가상정원 작업은 디지털과 아날로그, 두 상반된 개념을 적용한 상황을 만들고 관객이 이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연출하는 것이다. 이번 야외설치작업 'OPEN_가상정원'은 기존의 작업인 '가상정원'을 야외로 가져나오면서, 컴퓨터와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인공적인 빛 대신에 투명성을 지닌 피라미드 형 인공 구조물과 비닐을 상징적으로 대체하고 아날로그의 상징으로 식물을 결합한다. 정사각형 기초와 4개의 삼각형 면으로 구성된 고대 이집트 건축물처럼 생명체의 생육을 돕는 인공적인 에너지 집약형 피라미드 구조 안에 아날로그와 자연, 생명을 상징하는 실제의 식물을 넣어 실체인 듯 실체가 아닌듯한 정원을 구성한다. 무더운 대구의 7~8월은 식물의 생장에는 맞지않는 열악한 환경이다. 게다가 작가가 제시한 피라미드형 인공구조물은 바람이 적게 통하고 열기를 머무르게 하는 등 식물을 불편하게하고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에 처하게 만든다. 이러한 환경적 설정 상태에서 작가는 관객에게 참여형 재설정을 제안한다. "당신이 원한다면, 식물을 덮어 가두고 있는 피라미드 인공구조물을 식물로부터 분리시켜 신선한 공기가 통하도록 하고, 화분 식물에게 물을 주며 식물과 사랑의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식물화분과 피라미드 형태의 아크릴 구조물, 3개의 물뿌리개가 놓여진 이 전시는 관객이 수행하는 두 개 공간의 결합과 분리에 대하여 실험을 설계한다.

이들 3가지의 에너지가 상호작용하는 상태를 우리는 '협력 정원'이라고 설정하였다. 3인의 미술가가 이 '협력 정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태도와 행위는 조화 혹은 혼돈을 겪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은 생명감 넘치는 세계의 생태 환경의 규칙과 인간이 함께 살아 움직이는 과정의 전율하는 모습일 수 있다. 미디어를 통한 이러한 일체의 실험은 세계 모습의 일부를 반영하는 인위적인 '정원'의 한 양태일 수 있으며, 이러한 자연과 동시대 미디어 사이의 관계 설정, 관객과의 공유, 상황 몰입 등의 실험은 40여 년 전, 이 지역을 생육지生育地로 여기는 동시대미술에 대한 기억과 겹쳐지면서 지금의 미술에 대한 논의를 제안한다.

실내 공간 Spot2에서 박정기의 실험 설계 ; 정원

'박정기'의 이번 설계는 길이9.5×높이2.5m정도 정원건축의 담과 지름1.8m크기의 동근모양의 출입구로 구성되어 있다. 담 벽면과 둥근 출입구의 안쪽에는 7개의 화분에 담겨진 3m 정도 높이의 대나무들과 6개의 다각형 판 구조물에 심어놓은 잔디가 설치되어 있다. 어찌 보면 흰 벽을 배경으로 그 벽 위에 한 폭의 둥근 동양그림이 걸려있는 상황처럼 보인다. 흰색 담 벽면에 뚫어놓은 둥근 구멍 너머에 설치된 식물들이 그림의 구성요소처럼 역할을 하도록 설정한 것인데, 얼핏 보면 실제의 대나무와 잔디가 바람에 흔들리는 정원 공간을 연출하여 동양의 옛 그림에서 찾을 수 있는 쉼과 휴식의 요소로써 '바라보기'와 '머무르기'를 시도하는 작업처럼 해석되는 구성이다. 그러나 바퀴가 달린 기하학적인 나무판 구조 위에 심겨져 부유하는 듯 불안한 잔디 조각들과 이리저리 흩어져 놓여있는 대나무 화분 그리고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소의 되새김질 소리가 뒤섞여 있는 풍경 조합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원과 조금 다른 상황임을 알려준다.

이번 전시에서 제시한 작가의 정원은 더 이상 자기 자신과의 조우遭遇가 단절된 산업화의 과정과 급속성장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난 현대인의 자기 부정과 자기 분열적인 정신 병리상태에 주목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자기 스스로와 우연히 만나던 정원에서 잃어버린 자기 자신과 변질된 자신을 자기로 규정하는 풍경들을 마주하고 있다. 자본의 손익과 노동시간이 일상의 전면에 앞세워진 세계의 태도는 우리에게 자기실현의 기회를 제거시킨 채로 노동의 성과와 소비만을 강요하고 있다. 박정기는 노동과 그에 종속되어 버린 휴식이 더 이상 개인의 삶을 고양시키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전시된 작가의 설치작업에서처럼, 이제 정원은 분열되고 파편화되어 생명력이 휘발되는 듯이 부유하고 있다. 작가가 희망하는 정원은 동양의 전통적인 정원으로서 자연의 생명력과 호흡하며 감상하고 영감을 얻는 장소이며, 진정한 자기 자신을 조우하는 공간이다. 그래서 옛사람들이 남의 정원이 아닌 자신만의 정원에 서 있다는 표현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충만감의 순간이나 그 어떤 것에도 구속되거나 종속됨이 없는 자유로운 정신의 상태를 은유하는 의미일 것이다. 하지만 작가가 바라보고 인식하는 현대사회는 더 이상 이러한 개인의 삶에 대한 본질적 접근의 방법이나 과정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산업화를 거치면서 우리의 신체와 정신은 노동에 적합한 기계적이고 조직화된 형태로 변질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작가의 정원은 아름답지만 아련한 자연의 풍경에 대한 상상과 그 정서적 가치를 추억하며 자신의 여유를 되돌아보는 반성의 기억이다.

이 전시는 작가가 상상하는 '정원'에 관한 미술의 설계를 중심으로 현실적으로 구현된 결과 작업에 대한 주목 뿐만 아니라 진행이 보류되어 드로잉이나 도면으로만 남겨진 행위들을 아우르는 작업의 생각 과정들을 포함할 수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먼저, 작품제작과 설치의 비용 문제로 드로잉으로만 남겨진 처음의 설계를 이 글에서 소개하고, 같은 의도와 개념을 담고 출발하였지만 달라진 형식의 '정원' 설치작업을 실내의 빈 전시공간에 구현한 것이다.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박정기의 상상으로 이루어진 또 다른 전시의 기본설계는 유동적인 물을 이용하여 명상적인 파빌리온 형태의 건축적 구조를 만드는 것이며, 자연 상태의 흐르는 물이 건축 구조물의 일부로 기능하게 되면 어떨까? 라는 상상의 과정이었다. 이 설치작업은 대구라는 도시환경과 기후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다. 또한 자연적이고 감성적인 요소들을 이용하여 도시의 결핍 요소를 채우고, 그것이 도시공간 속에서 여러 건축 공간들 사이와 사람들 사이의 매개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험하는 것이다. 야외 광장에 설치 계획하는 구조물은 앉거나 누울 수 있는 800 x 800 x 50cm 크기의 목재 데크 위에 세운 400 x 400 x 450cm 지붕 형태의 구조물로 이루어지며, 지붕과 바닥 사이에 벽이 없이 기둥만 존재하는 구조물로서 안과 밖의 시선이 서로 통할 수 있는 구조이다. 또 이 구조물은 노란 플렉시글라스 plexiglass로 만들어진 투명한 지붕 때문에 구조물의 안쪽은 온통 노란빛으로 가득 차게 된다. 이 노란 지붕을 타고 물줄기가 사방 아래쪽으로 벽처럼 흘러내리고, 흘러내린 물은 30cm의 홈을 통해 바닥 공간 밑에 숨겨진 물 저장소에 모인다. 그리고 그 물은 전기펌프 장치를 통해 기둥 속의 관을 타고 지붕 위로 올라가 노랑 플렉시글라스 지붕을 타고 다시 흘러내리며 순환한다. 박정기의 'Rain pavilion' 설계는 실내 전시작업 'The Rain Project(2012)'를 야외 설치작업으로 전환하면서, 공간 안에서 경험할 수 있었던 소리의 공명 대신에 물 자체로 공감각적인 공간을 직접 구축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소통을 전제로 하는 건축적 구조에 전통누각의 자연친화적 특징을 현대적 도시공간에 맞게 재해석하여 빛과 물을 건축 구성요소로 끌어들이면서 쉼과 휴식의 요소로 도시공간을 완충적으로 연결한 것이다. 우리는 이 구조물을 매개로 작가가 제안하는 시각과 청각, 촉각 등의 공감각적인 '머무르기'를 수행할 수 있으며, '머무르기'를 통하여 휴식과 명상, 치유, 소통을 공감할 수 있고, 또 거리를 거니는 사람들과 주변의 도심 풍경들을 포함하는 300㎡크기 정원庭園 속의 정자亭子 주위를 산책하는 여유 있는 경험을 상상할 수 있다. 이 같은 작가의 상상과 생각 흔적들은 드로잉과 미니어처 모델 형태로 전시실에 펼쳐지고 관객의 상상을 다시 공작하게 된다.

이번 전시에서 언급하는 '정원'의 기억은 1977년 4월30일 시민회관에서 개최된 "제3회 Contemporary Art Festival DAEGU" 전시의 야외 특별 전시로 5월1일 진행했던 '낙동강 강정 백사장'에서의 해프닝, 이벤트를 기점으로 현재에 이르는 대구의 실험미술(Contemporary Art), 특히 야외 설치전시의 일면을 소개하며 '자연'과 인간의 '예술 행위'가 만나는 의미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어, 박현기가 강변에 늘어선 포플러 나무 몇 그루의 그림자를 횟가루로 그린 '무제'는 오랜 시간 보존할 수 있는 캔버스 그림보다는 비바람과 사람들 발자국으로 쉽게 지워져 버릴 그림의 생명이 더욱 강렬할 것이라 생각하는 작가의 태도를 반영한다. 또 이강소가 넓은 모래 바닥에 구두를 벗고 상의와 넥타이, 와이셔츠, 양말을 일렬로 벗어 놓은 채 직경 5m의 모래성을 쌓아 올린 작업도 일상과 다른 자연의 상태에서 다른 차원의 시각과 상황을 경험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문범의 '긴 천 이벤트', 정재규의 모래톱 평행선 긋기와 이종운, 장성진, 이상남, 백미혜, 최병소의 다양한 신체 행위들을 당시의 신문과 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1977년 야외 설치 행위의 상세 내용은 2004년 대구문화예술회관 발행한 "대구미술 다시보기" 전시도록과 2016년 민속원에서 펴낸 "강정대구현대미술제" 도서를 참고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전시는 지금, 여기로 이어지는 설치미술 관련 태도의 연결 기반이 '실험'과 '자연', '신체행위', '몰입'이며, '실험'을 생육해온 서식지 '정원'으로서 지역과 장소를 다시 기억하고, 1977년의 야외 실험정신과 당시 미술가들이 전시공간의 경계를 확장하여 대중과 함께하려는 시도에 관한 현재적 연결성을 가늠하며, '또 다른 가능성'으로서 우리시대 실험미술가의 '태도'에 대한 기대를 포함하고 있다. 한편, 문맥에서 조금 비켜난 이야기이긴 하지만 야외공공미술프로젝트의 상징이라 부를만한 '윈스터조각프로젝트'가 1977년 7월3일부터 11월13일 기간 동안 기존의 실내전시공간을 벗어나 첫 탄생을 알렸던 기억은 생각할수록 멋진 우연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할 권혁규, 김형철, 서상희, 박정기의 태도는 세계와 인간 정서에 대한 관찰, 관객 참여, 놀이, 자연성自然性의 은유, 그 사이에서의 부조리不條理를 꿰뚫는 직관적 인식을 시각화하여 동시대 미술의 소통 가능성과 지평을 확장시키려는 탁월성이다. 따라서 이러한 작가의 작업 설계와 놀이에 대한 공감 시도는 과거에 이어 새롭고 명확해질 동시대의 어떤 순간을 위한 우리의 'Hello!'일 것이다.

봉산문화회관 큐레이터 정종구

2017 Hello! Contemporary Art
야외설치 1977로부터

2017. 7. 21. Fri – 8. 19. Sat
Bongsan Cultural Center 야외광장 및 2Exhibition Hall

주최 봉산문화회관 **후원**
주관 봉산문화회관

참여작가 권혁규, 김형철, 서상희, 박정기
기획&진행 정종구
진행지원 김영숙, 예수현
연계전시 참여작가 정재범
연계워크숍 에듀케이터 이기선, 신재희, 이시은, 김동앵, 김민지, 김진영
사진 이경윤
디자인 LeeNu Disign

발행인 대구광역시중구청장 윤순영
발행처 봉산문화회관
편집인 봉산문화회관장 정연희
행정총괄 전시공연담당 전정현, 관리운영담당 김창식
행정지원 김선창, 조이순, 이정희, 최수정, 이현희, 박경호
정연덕, 진은경
발행일 2017. 9. 5
발행부수 500부

Copyright© 2017 BONGSAN CULTURAL CENTER
본 자료집은 봉산문화회관의 기획으로 제작&발행되었습니다.
본 자료집에 실린 글과 도판은 봉산문화회관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집과 해당 전시는 '문화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하였으며,
사업비 일부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지원받았습니다.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IP제어번호 : CIP2017022304)

BONGSAN CULTURAL CENTER
41958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길 77
#77, Bongsanmunhwa-gil, Jung-gu, Deagu, Korea
t.053 661 3500 f.053 661 3509

www.bongsanart.org
트위터 @bongsanart **페이스북** bongsanart